

2022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
자료집



2022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느낌이 주는 위로	4
[우수상] 장애아동 드림멘토-나를 변화시킨 고마운 활동	6
[우수상] 근거 있는 자신감 쌓는 법	9
[장려상] 봉사하며 성장한 2022년을 기록하며	12
[장려상] 막연함을 뚜렷함으로 바꿔준 고마운 프로그램	15
[장려상] 나를 대통령이 인정한 과학자로 성장시켜준 삼육대의 비교과 프로그램	17
[장려상] 전공학습과 논문읽기 실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	19
[장려상] 독서는 사회의 새싹	21
[장려상] 나를 꿈꾸다	23
멘토와의 만남에서 미래를 그려보다	25
내가 바로 퀴즈왕?!	27
대외활동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CTL 서포터즈'	30
능동적인 비교과 활동을 원한다면? SU포터즈	33
삼육대 퀴즈왕 도전기	35
모두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전공연계봉사클럽	37
학습공동체란 열매	39
초겨울의 캠퍼스 글램핑	41
도전에서 봉사에 이르기까지	43
면접에 대한 두려움은 Down, 자신감은 Up!	45
전공과 연계한 폐의약품 수거 봉사에 참여하다	48
꾸준히 천보당만보당	51

Redesign Society For All (모두를 위한 사회 재구조화)	53
나를 알아가는 시간	55
버섯과 우리	57
야! 너도 할 수 있어 수토리 챌린지와 함께라면	60
토익을 응시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는 걸 추천한다	63
호프캠프로 되돌아본 나	65
그린토피아(플로깅)에 참여하고 난 후	67
글로벌 시대	69
팀플, 잘하고 싶어?	71
무제	73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	75
지금부터라도 화이팅!	78
실제 멘토를 만나다. 상담심리학과 기업멘토 만남의 장에 참석한 소감	80
작은 불씨	83
인식의 변화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다!	85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87



느림이 주는 위로

상담심리학과 오지이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어라.” [이외수, 시「화선지」중]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위 문장에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까. 늘 그렇듯 문학은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하지만 내가 이 구절을 접하였을 때 단 하나의 생각만 들었다. 삶의 주체는 환경이 아니라 나,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공부를 하든 ‘나’는 변하지 않으니 묵묵히 날개를 펼쳐도 된다고. (혁신) 또래상담동아리 또치 아웃리치 프로그램_느린 우체국 프로그램은 나를 구절 속 한 마리의 새로 만들어 주었다.

지난 5월의 나는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기를 바랐다. 이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 ‘상담심리학과 전공’을 살리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생각한 계획은 공무원 시험 준비. 그마저도 올해 최고 경쟁률을 찍으며 ‘내가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맞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인은 ‘개발자’라는 직업을 소개해 줬고, 그 직업을 위한 공부는 신선했으며 마냥 재미있었다. 하지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벽은 높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는 오갈 곳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고민을 가졌던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봄 사랑나눔주간에 또래상담동아리 부스를 방문하였다. 마침 (혁신) 또래상담동아리 또치 아웃리치 프로그램_느린 우체국(이하 ‘느린 우체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곧바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단했다. 참여자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편지의 상단에 적은 후, 그 고민을 해결했을 6개월 후 나에게 편지를 적는다. 편지 봉투에 학번, 이름,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 뒤 나의 집으로 편지가 도착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만 고민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를 보면 항상 걱정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스에 앉아 진지하게 적어 내려가는 동기들을 보며, 이 시기에 걱정이 많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깨달았다. 단순히 남의 불행을 보며 내 불행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걱정을 편지 속에 담은 우리들은 이질적이지 않았으며,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청춘의 일부분을 겪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느린 우체국’만이 줄 수 있는 위로 아닐까?

6개월 뒤의 나를 상상하며, 그리고 대나무숲 속에 던져진 것처럼 편지지에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까지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말해도 함부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답문이 없는 그 편지지는 무언의 위로를 던져 주었다. 또한 고민과 함께 밝은 한숨을 담아 주었고, 6개월이 지난 나를 상상하는 설렘을 선물해 주었다. 어느덧 까만 글씨가 편지지를 가득 채웠고, 그것을 내 불안과 함께 편지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12월의 어느 날, 가족으로부터 학교에서 온 편지가 우리 집 우편함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느린 우체국’을 읽고 살 만큼 바쁘게 지냈던 터라 ‘학교에서 올 편지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향해 편지 봉투를 확인한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낯설었지만 익숙했던 편지지를 꺼내 읽으며 이유 모를 낯간지러움을 느꼈다. 나는 어디서든, 어떻게 해서든 잘해 낼 것인데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는 과거 때문이었다. 하지만 느린 우체국이 없었더라면 내가 성장한 것을 알지도, 어쩌면 성장할 기회도 잡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는 무엇이든 재미를 느껴야 하는 나의 성격상 ‘개발자’로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느린 우체국’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였을 거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차분히 정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미래가 막막한 것은 여전하다.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많고, 전공과는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나에게 대한 막연한 믿음이 생겼다. 편지지를 적어 낼 때 생각이 많았지만, 결국 느린 우체국을 거친 6개월 동안의 나는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본 비교과 프로그램은 또래상담동아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다. 아웃리치란 무엇일까? SB리치패밀리에 따르면 아웃리치는 “도움을 찾고 요구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충고가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행위”라고 한다.(SB리치패밀리, 2022) 사실 또래상담동아리는 에브리타임 앱을 통해서 고민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였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이는 상담심리학과 학부생인 본인도 마찬가지이다. 사랑나눔주간 부스를 통하여 장벽 없이 학우들에게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다가가 도움을 준 것이 인상적이다.

다음 해에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학우들에게 한 번씩은 권장할 것이다. 상담자가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낯을 가리는 내담자에게는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적다. 때문에 느린 우체국에서 우리의 편지가 전해지는 속도처럼 자신을 위한 편지지 한 장을 적는 것이 어떨까? 편지의 내용은 오직 본인만 알 수 있으니 남들에게 말 못 할 고민도 얼마든지 환영이다. 6개월 전의 내가 주는 낯간지러움과 웃음은 덤이며.



장애아동 드림멘토 - 나를 변화시킨 고마운 활동

사회복지학과 이도윤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소개]

아이들과 대면하여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러던 와중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드림멘토'라는 삼육마을 프로그램이 있으며, 지원자를 받고 있다는 선배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평소 발달장애에 관심이 있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를 하고 싶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하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하였다.

'장애아동 드림멘토'는 삼육마을 프로젝트의 다양한 팀들 가운데 하나로,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발달장애 아동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증진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강점을 발견, 파악하여 진로에 맞는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삼육마을'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봉사가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 차원으로써 '돌봄'의 가치를 사회에 전하고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천사 같은 서*를 만나고] (에피소드)

아동과 봉사자 선생님을 1:1로 매칭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내가 맡은 아이 이름은 서*이었다. 서*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외부활동을 한 날은 힘들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학교 내 상추를 따고 제명호에 올라가 쉬는 것이 활동계획이었는데, 서*는 활동장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학교 이곳저곳을 뛰어 돌아다녀서 다른 아이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었다. 학교 건물 뒤편에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해서 옆에서 달래느라 많은 힘을 썼다. 기어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몸으로 막아냈다.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서 떼어내서 가까운 나무와 풀이 있는 곳에서 쉬게 했고 서*는 떨어진 나뭇가지를 들고 빙빙 돌리며 놀았다. 입을 방긋 벌리며 웃고 있는 서* 옆에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서*는 놀던 것을 내려놓고 내 옆에 와서 섰고, 나는 서*를 업고 처음 활동장소에 가서 먼저 간 동장 선배와 아이들을 기다렸다. 그날은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운 하루였다. 원하는 장소로 억지로 아이를 끌고 데려가려 하지 않고,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

드림멘토 활동 마지막 날, 서*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 활동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 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어눌한 발음에 작은 목소리였지만 내겐 뚜렷이 들렸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서*와 함께하면서 많이 웃었고 행복했다. 웃을 일이 많이 없던 내게 웃음을 가져다준, 웃는 모습이 천사같이 예쁜 서*를 잊지 못할 것 같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한 점 & 느낀 점]

'장애아동 드림멘토'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협동심을 잘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러한 편견과 시선을 깨고 그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예코백 디자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가방을 색칠하고 만들면서 가방을 완성하였고, 블록 쌓기 게임을 하며 누가 가장 높이 쌓는지 대결을 하기도 했다. 발달장애 아동도 여럿이서 함께 협동심을 발휘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꾸미고 만들며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걸 느꼈다.

아이들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르고 다양한 성향을 보였다. 클레이 아트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 색칠놀이를 좋아하는 아이, 공놀이를 좋아하는 아이까지 좋아하는 놀이 또한 달랐다. 아이들마다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르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활동을 거듭할수록 아이들과 유대감이 쌓여 더욱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더욱 적극적으로 즐겁게 활동하는 게 보여서 뿌듯했고 기뻛다. 앞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만나게 된다면 더욱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대상에게 가지는 선입견과 편견은 내가 그 대상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나의 내면에 자리한 편견들을 조금씩 깨부수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고 싶다. 장애아동 드림멘토 활동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아동 드림멘토’만의 특성 및 장점]

또래 학생과 다르게 예외적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적응을 겪는 발달장애 아동은 돌봄에 있어 필수적인 대상자이다. 프로그램 '장애아동 드림멘토'는 학업 발달 및 또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에 1:1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돕고, 격려와 강점발견을 통해 아동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장차 자립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운동을 통한 놀이나 예코백 디자인, 클레이 아트,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에 맞는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은 '장애아동 드림멘토'의 효과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아동 드림멘토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외출을 안 좋아하는 00이도 드림멘토는 항상 즐거워하며 갔었다', '덕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주말마다 바빴는데 숨통 트고 지냈다. 정말 감사하다.' 등의 말씀들을 해주셨다.

[앞으로 '삼육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했듯이, 장애아동 드림멘토는 '삼육마을'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나는 삼육마을 프로젝트를 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삼육마을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만들고 계획, 제공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활동과 차별적이다. 돌봄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돌봄의 가치가 중요해진 사회에서 '삼육마을'이 갖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삼육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돌봄서비스가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할 때 참여자로서 도움을 제공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계획하는 '기획자'의 입장이 되어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게 되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면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내에서 창업 특강과 동아리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학생이라면, '삼육마을' 프로젝트에 꼭 한번 참여하여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이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거 있는 자신감 쌓는 법

약학과 김병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 이유]

저도 이 학교에 편입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던 전적 대학에서의 생활을 반성하며, 저는 삼육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활동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2년 동안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는지, 그 당시 참여할 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등이 잊혀졌고,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활동이나 해왔던 활동, 또는 배웠던 점, 느꼈던 점들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참여해왔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깔끔하고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웠는지를 정리를 못 했던 게 가장 컸고, 이번 기회로 2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어떤 점들을 배웠는지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용하기로 했던 것은 노선과 수토리였습니다.

[공모전 참여 및 프로그램 정리 과정]

공모전은 활동 등급에 따라 나누어지며, 게시물, 댓글, 좋아요 등이 큰 평가기준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토리컬러가 나누어지며, 저는 게시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Lv. 1 (Yellow)	첫 활동자 등급
Lv. 2 (Pink)	게시물 3개 + 댓글 5개 + 좋아요 10개 이상
Lv. 3 (Mint)	게시물 7개 + 댓글 10개 + 좋아요 20개 이상
Lv. 4 (Red)	게시물 10개 + 댓글 20개 + 좋아요 30개 이상
Master (Gradation)	게시물 15개 + 댓글 30개 + 좋아요 40개 이상 + BEST 포트폴리오 선정 1번 이상

1) 그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 전부 정리

사실 저는 가장 먼저 게시물 개수를 미리 정하기보단, 1년 동안 참여했던 활동들을 잊지 말고 빼곡하게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노선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하고자 합니다.

2)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고르기

위의 과정 이후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나 배운 게 많았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물론 제가 배웠던 점이 많은 프로그램을 고르기도 했지만, 삼육대 학우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1학기 때는 15개의 게시물을 적었고, 2학기 때는 추가로 5가지의 게시물을 추가하였습니다.

3) 느낀 점과 배운 점들을 정리

프로그램을 전부 끝났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배운 점과 느낀 점 등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여했는지, 후배들에게 추천하는지 등, 여러 정보를 추가하여 마무리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장학금 발탁: 사실, 작년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은 바로 자기 계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장학금을 3학기 동안 지원해주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재능 키움 장학생'입니다. 장학금 지원 액수가 큰 만큼, 경쟁률도 높은 치열한 장학금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떨어졌고, 올해 많은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동기, 장점과 단점 등,,,을 작성할 때, 제가 작성한 포트폴리오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한 활동에 대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미리 작성해놓았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을 적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통한 학교생활 정리가 장학금 선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토리 30일 챌린지: 수토리 이벤트로, 30일 챌린지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목표로, 30일 챌린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30일 동안 3kg 감량하기, 건강해지기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세워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른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챌린지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었지만,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는 습관을 만들어서 현재도 샐러드를 잘 먹도록 되었습니다. 작성삼일이 될 뻔한 계획이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올려 꽤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만의 특별한 점]

수토리에 올렸을 때의 특이한 점으로는 많은 사람이 제 게시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가끔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소한 이벤트를 통해서, 감시자가 있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 이외에 저도 다른 학우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반성하기도, 자극받기도 합니다. 같이 마스터 레벨에 도전하던 학우가 있었는데, 그 학우의 게시물을 보며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배우는 장점과 은근히 생기는 경쟁심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특별하고 신기했던 점은 과거의 일들을 적었지만, 미래가 뚜렷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적을수록, 저에 대한 많은 것들이 구체화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내면에서 진행되는 피드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가며, 그리고 스스로 피드백하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의 근본 원인은 기록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자연스레 동기부여를 하며,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록이며, 기록을 통해 저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는 이력서,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저 자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만들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만든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에 대해 시각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을 이뤘는지, 어떤것을 배워왔는지 등은 제 대학생활에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좀 더 당당해졌으며, 동시에 무엇이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얻었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들을 통해, 쉽게 그리고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공헌 부분으로는 충분하지만, 장학금 준비에 과하게 치우쳐진 점을 보았고, 또한 전공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 지 구체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소소한 성공들이 쌓여가며, 제 일부가 되어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분명 큰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회가 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만들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만든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이뤄왔던 것들에 대해 시각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을 이뤘는지, 어떤것을 배워왔는지 등은 제 대학생활에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좀 더 당당해졌으며, 동시에 무엇이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얻었습니다. 시각화된 자료들을 통해, 쉽게 그리고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공헌 부분으로는 충분하지만, 장학금 준비에 과하게 치우쳐진 점을 보았고, 또한 전공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 지 구체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소소한 성공들이 쌓여가며, 제 일부가 되어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분명 큰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회가 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션 포트폴리오]

- 4-2 학기
 - 평균 학점 : 23학점 수료 예정
 - 생안법(삼육대 약대 학술 동아리) 임원
 - 유앤실(삼육대 약대 운동 동아리) 임원
 - 약손(삼육대 약대 봉사 동아리) 부원 - 패러믹물 수거 및 인식 개선 봉사 진행중(22. 09 - 12월)
 - 22 - 2학기 교내 근로 장학생
 - HY사회복지재단 든든함입원금 장학생
 - KB Laschool 엔트링 프로그램 멘토(22. 2월 - 12월)
 - 한국장학재단 사외리더 대학생 멘티(22. 3월 - 12월)
 - 예산 레인보우 도서관 도서 정리 봉사활동(22. 09. 18)
 - 아산보건소 선별진료소 접수, 거리두기 안내, 행정보조 봉사(22. 10. 02)
 - 2022 우수인재와 기업멘토 만남의 장 멘티 참여(22. 10. 12)
 - 멘토: 한국철리 경영학 박사님
 - 중앙재단 장학생 선발(22.10.22)
 - 삼육서울병원 약재부 봉사활동(22.11.06)
 - BLS provider(보건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2.11.22)
 - 삼육안화재단 장학생 선발(22.12.04)



만약,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위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입학한 후, 모든 활동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봉사하며 성장한 2022년을 기록하며

약학과 심연경

- 주체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하며 시작한 2022년 -

3학년으로 편입한 나는 2021년부터 전공연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었다. 전적 대학교에서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던 터라, 편입한 삼육대학교에서도 봉사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많이 심각했기에 대면 봉사활동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스크와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서 기부하고 목도리를 떠서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심 전공과 좀 더 연계되고 더욱 주체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내가 속한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뜻깊은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마음이 맞는 학과 선후배, 동기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회장직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학과 봉사동아리 "약손"의 회장이 되었고, 약학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약손을 운영하며, 학교 전공연계 봉사클럽은 반드시 가입하고자 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학과 선후배, 동기의 참여도도 높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당연히 전공연계 봉사클럽에 가입하고자 하였고 21년 겨울방학부터 봉사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전공연계 봉사클럽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기획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과정에서 고민되는 것들에 대해 학과 교수님들과 여러 차례 상담하였는데, 학과 교수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학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논문이나, 기사 등도 많이 찾아보며 학업적인 측면의 역량도 키울 수 있었고, 약손을 운영하는 다른 임원진들과 여러 차례 회의하며 협업하는 자세까지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고심 끝에 결정한 봉사활동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이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될 우리지만, 정작 약을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약을 왜 버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사회에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기획하게 되었다.

- 봉사활동으로 성장한 봄, 여름, 가을, 겨울 -

봉사활동을 기획까지는 하였는데, 이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선후배, 동기들이 많이 참여해줄지 사실 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신입생 OT, 학과 내 단독방에 열심히 홍보하였다. 그 결과 1학기에는 38명, 2학기에는 42명의 회원이 모집되었다. 1학기에는 우리 회원들, 즉 약학과 학생들도 폐의약품을 왜 올바르게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폐의약품이 생기는지,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수거팀과 홍보팀을 나누어 교내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활동을 해 교직원, 학우들의 폐의약품을 분류, 폐기하는 활동을 하였고 폐의약품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도 게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태릉입구역 인근에서, 약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통을 배부하여,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버리도록 안내하는 활동도 하였다. 회원 모두가 만족할만한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다.

2학기에는 조금 더 지역사회로 나아가보고자 아파트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하였는데, 기획 후 실행 직전 남양주시에서 인허가문제로 인해 폐의약품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다시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설문조사를 곁들여서 사람들이 왜 폐의약품을 버리고, 어떤 폐의약품이 생기는지 궁극적인 원인을 찾는 활동까지 추가로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일단 우리 교내의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이 봉사에 대한 넓은 이해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였다. 약손 활동을 하며 교내의 여러 시설 관계자분들에게 시설과 관련 요청할 일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았다. 또한 교내 학생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할 때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걸음을 멈춰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봉사활동을 생활화하는 따뜻함을 지닌 학교라는 것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작년 겨울에 기획을 시작해 올해 겨울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봉사활동으로 가득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 이웃, 더 나아가 환경을 생각하며 마무리한 2022년 -

2022년 한 해가 지나며 1년간의 활동을 되짚어 보았을 때, 우리의 봉사활동이 과연 뜻깊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봉사활동이란, 몸이 어려우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돕는 것, 일손이 부족한 곳에 가서 일을 함께 나누어 해주는 것 혹은 헌혈, 책이나 옷, 돈을 기부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전공연계 봉사클럽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의 정의가 내가 생각했던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아주 넓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느꼈다.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거나 혹은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봉사활동임을 이번 전공연계 봉사클럽을 하며 깨닫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1년 동안 한 이 봉사활동을 전 국민이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내 학생들, 그리고 태릉입구역에서 통을 받아 가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여러 외부 기관의 담당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활동을 기억하고, 또 한 번쯤 폐의약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도 멈춰서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지고 가시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늘었다면, 우리는 올바른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많은 사람이 폐의약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미래에 약사가 될 우리가 좀 더 미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일 때 이렇게 전공과 연계해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또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 비록 내년에는 회장이 아닌 회원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지만, 내년에도 약학과 학생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며 한 해를 보람차게 보내고 싶다.



막연함을 뚜렷함으로 바꾼 고마운 프로그램

화학생명과학과 오혜연

I.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동기

삼육메이트 프로그램은 1학기 이상 삼육대학교를 재학한 멘토가 신입생이나 전과생, 편입생 메이트와 함께 팀을 꾸려 1:1로 메이트의 학과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와 멘티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면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멘토와 멘티간 대학 시절 추억을 쌓을 수도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매 학기마다 학기 초반에 신청 및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된 팀은 한 학기동안 12회 이상 (15시간 이상) 활동을 진행하면 수료가 됩니다.

저는 올해 3월에 편입학을 하여 3학년으로 화학생명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과 같이 대학 생활을 처음해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삼육대학교에서의 생활을 처음이었고 전적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입학 후 학교 홈페이지 및 에브리타임을 통해 삼육메이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멘티를 구하는 멘토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멘토님께서 생명과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고, 멘토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활동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비교과 프로그램 후기 공모전에 참여하는 제 자신으로 이어졌습니다.

II. 구체적인 활동내용

저희 팀은 총 13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멘토님께서 저희 전공인 생명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신분인지라 저희 팀만 할 수 있었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학기 초반에는 삼육대학교 캠퍼스 및 학과 건물인 제 1/2과학관, 화학생명과학과 및 약학과의 부설연구소(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 의명신경과학연구소)를 탐방하면서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멘토님께 저희 학과의 전공과목인 인체생리학과 면역생물학에 대한 멘토링을 받으면서 시험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위 두 과목은 모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저의 세부전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과목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멘토님께서 이 과목들을 이미 우수한 성적으로 수강하셨었고 심지어 현재 면역학을 세부전공으로 대학원 입시를 치르신 선배였기에 어려운 부분을 대학생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렵지 않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 관련한 활동으로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학 기초 실험을 멘토님께 1:1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멘토님께서 삼육대학교에서 학부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어렵지 않게 실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DNA 추출 및 전기영동, 단백질 전기영동과 같

은 실험 기법의 원리와 과정을 제대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열린 삼육대학교의 축제인 "Re-wind" 축제 즐기기, 삼육대학교 후문 및 후문 근처에 위치한 별내 로데오 거리의 맛집 탐방 등을 하며 맛있는 먹거리를 경험하고 멘토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III. 느낀점

삼육메이트 활동 덕분에 단기간에 학과 생활을 그 누구보다 알차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는 학과에서 수석을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서 저에게 생명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주셨고 그 덕에 생명과학을 전공으로서 처음으로 공부할 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멘토님께서 멘토님의 지도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멘토님에 이어 저도 약학과 부설연구소인 '의명신경과학연구소'에 학부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덕분에 입학할 처음 했을 때는 어떤 진로를 계획해야 할지 불안해하고 불명확했습니다만 지금은 생명과학 분야 중 신경과학을 세부전공으로 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게 되면서 명확한 진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준 '삼육메이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대통령이 인정한 과학자로 성장시켜준 삼육대의 비교과 프로그램

화학생명과학과 천재환

I.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동기

사회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전공연계 봉사클럽이란 매 학기마다 학과 동기, 선·후배끼리 팀을 꾸려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학생명과학과 (구, 생물학과, 생명과학과)의 19년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 동아리인 '빛길따라-유전캠프'(지도교수: 김현희 부총장 및 대학원장님)는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주제로 매 년, 매 학기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실험 교육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평상시에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고 멘토링 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2020년에 유전캠프의 대표이신 선배의 추천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 2학기(조장으로 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 1학기 및 2학기 그리고 2022년 1학기 및 2학기(대표로 참여)까지 총 5학기를 연속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습니다. 즉 2학년 2학기때부터 졸업학기까지 모든 대학생활을 이 프로그램과 함께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II.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현재 일반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과학' 교과목을 배울 때 교과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제집을 통한 이론만 학습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과학도로서 이는 굉장히 잘못된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나타나려면 최소 몇 십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이란 학문은 이론을 토대로 이 이론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학문인데,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학생들에게 과학이란 대입을 위해 배우고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취업 및 장래가 보장되는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공과대학의 진학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과학 대학의 진학률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동아리는 전공연계 봉사클럽에 매 번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의 자연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저희 학과를 포함한 자연과학 대학으로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 저희 수업을 수강한 고등학생이 저희 학과로 입학을 하여 다시 고등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수여자가 공여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수업이라서 실험 수준이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동아리의 실험 수준은 대학생 1학년이 배우는 일반생물학 실험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도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과학도로서 직접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동아리의 활동은 공여자(대학생)와 수여자(청소년 학생)가 모두 생명과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

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 중에서 오늘날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는 세포생물학(식물 세포 분열 관찰하기), 분자생물학(DNA 추출+전기영동 및 단백질 전기영동), 미생물학 (세균 염색 및 세균 배지 만들기), 면역학(혈구세포 관찰하기), 생리학 및 해부학(쥐 해부) 분야와 관련된 실험을 각 1회씩 진행하여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이 생명과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II. 프로그램 기대 효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사회봉사단으로부터 30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장학금까지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도교수님이신 김현희 교수님의 연구실인 삼육대학교 부설연구소 '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에서 연구소장 직인이 찍힌 활동인증서를 수여받아 본인의 전공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조리있게 서술 및 구술하여 작년에 제 19회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삼육대학교 개교 이래 첫 장학생 선정이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 기준은 과학활동과 학업계획, 봉사활동 등이 있는데 아마도 이 프로그램의 경험이 과학활동과 봉사활동 부분에서 좋게 평가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한 후배도 올해 제 20회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공연계 봉사활동은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를 청와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연결점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배에게 대통령과학장학생에 대해 소개하면서 매 년 계속해서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에서 장학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림 1. 대통령과학장학생서 및 메달



그림 2. 대통령과학장학생선정 기념사진

IV. 프로그램 참여 소감

이번 학기가 졸업 학기인 저는 현재 의과대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서류를 구비할 때 전공과 관련하여 남들과는 다른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서류가 바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실험수업 활동인증서와 대통령과학장학생 증명서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이 프로그램과 절반 이상 같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학교 관계자 교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학습과 논문읽기 실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

화학생명과학과 권순용

I.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동기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란 전공 교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팀원간 학습경험을 공유하며 자기주도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화학생명과학과를 재학중인 저는 같은 학과 학우분들 중에서 저랑 진로 설정이 비슷한 학우분들과 학술적인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한 2021년 2학기때부터 2022년 1학기때까지 1년간 생명과학 전공 및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동기, 후배들과 함께 팀을 꾸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단순히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을 대비하기 위한 학술 활동을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1년간 열심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II. 구체적인 학습공동체 활동

저희 팀은 팀 선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그 주부터 매 주 수요일에 대면으로 만나 3시간씩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활동은 생명과학 전공과목인 '인체생리학'과 '해부학'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활동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국제 학술 논문을 읽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주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학습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갈 리더를 정했습니다. 리더는 스터디 활동을 하기 전까지 그 주에 '인체생리학'과 '해부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팀원들에게 발표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학술 논문을 최대한 학습하여 팀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를 맡았을 때는 전공과목에 대한 스터디를 준비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적어 놓은 필기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게 정리를 하거나 전공 서적과 교수님의 설명을 비교하면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팀원들을 수업시간에 본인이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목에 대한 스터디 활동 이후에는 곧바로 학술 논문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리더를 맡았을 때는 우울증에 대한 실험논문과 리뷰논문을 학습 및 정리하여 팀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직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이 학부생이기도 하고 영어로 된 학술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모두 없었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준비하는데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 할수록 나름대로의 요령이 생겨 나중에는 다른 팀원이 발표할 때도 그 논문을 혼자 훑어보며 대략적인 내용 이해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팀 팀원들은 수면, COVID-19, 약용버섯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우울증과 더불어 이러한 주제들을 연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최신 연구 방향은 어떤지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II. 기대효과

학습공동체 팀원들과 '인체생리학'과 '해부학'에 대해 논의하고 토의한 결과 두 과목 모두 A+를 받으며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체생리학에 대해서는 전체 수강생 중 1등으로 수강을 하는 명예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모두 이 활동을 통해 본 과목들에 대해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무리 전공과목이라고 해도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했겠지만 본 과목들은 팀원들과 명확한 이해를 하며 함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과목에 대한 스터디 활동은 학생으로서의 성장에 기여했다면 학술 논문에 대한 스터디 활동은 생명과학 연구원으로서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저는 삼육대학교 약학과 부설연구소인 '의명신경과학연구소'에서 학부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읽었던 논문들을 통해 뇌 질환을 연구할 때 어떻게 실험설계를 하는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연구 활동에 대해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안하고 곧바로 연구소에서 일을 했다면, 아무런 생각없이 기계처럼 실험만 하며 시간을 썼을 것 같아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IV. 프로그램 참여 소감

저를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뇌 질환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성장시켜준 본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시고 운영해주신 교육혁신원 연구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독서는 사회의 새싹

일본어학과 정예주

1) 독서모임에 참여한 동기

저는 삼육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나 학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가 시작하기 전, 저는 4학년 막 학기라는 것을 빌미로 학교 모임에서 경험을 쌓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독서모임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땐 하지 않는 독후감 쓰기, 책 읽기를 마쳐야 하는 마감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소모임을 이루어 팀원들과 같은 책을 읽은 후 그 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독서모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2) 독서모임의 과정

제가 독서모임은 한 명의 리더와 5명의 팀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엔 팀원이 4명이라 사람이 적은 느낌이 있었는데 독서모임을 진행 할수록 2명의 팀원이 더해져 독서모임에 활기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독서모임을 진행하면서 총 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선정방식은 '화잇 연구 센터'에서 선정한 도서 목록 중 3가지를 팀원들과 상의해 선택하고 나머지 한 권은 자율도서로 진행했습니다. 책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미리 추천도서를 통해 선별된 도서로 독서를 진행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서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율도서는 제가 추천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선정되었는데 이 책이 이미 독서모임 때 토론했던 '침묵의 봄'과 밀접상통하는 내용이라 연결성 있게 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 독서모임의 토론

처음에 책에 대해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대되는 동시에 막막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의 경험 자체가 적었고 말보다는 글이 더 표현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격정과 달리 토론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리더가 토론의 틀을 제시해주어서 단계별로 저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의 틀이 독서모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학기에 진행된 독서모임을 기반으로 토론의 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도 리더가 다시 한 번 제가 말한 내용을 간략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팀원들과 공유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더불어 팀원들도 서로 배려하고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독서토론의 내용이 풍성해졌습니다. 토론의 마지막엔 그 날 가진 독서모임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문장은 오로지 그 날의 독서모임을 함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독서모임 즉, 토론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초반엔 2시간 동안 모임이 진행 되면 알맞게 모임이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팀원들과 친해지면서 정해진 2시간이 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4) 독서모임의 독후감

토론은 독서모임 전 팀원들이 작성해 온 독후감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후감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처음 이 독서모임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독후감이었는데 완전히 자유 형식으로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책에서 정해진 분량을 완독하고 독후감을 작성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독서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제성으로 독서모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모임을 하기로 한 이상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독서할 땐 독후감을 전혀 쓰지 않아 금방 책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독후감을 써서 책을 읽었다는 증명과 함께 책을 읽고 느낀 바를 적는 것이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독후감을 타인이 본다는 전제하에 쓰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분명 이 내용이 다음에 진행될 독서모임에서 제시되어 모두가 생각해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언어로 창작한 결과물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5) 독서모임 활동 후기

저는 사교적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과의 모임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서모임을 진행하며 저의 생각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관심사가 공통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적 탐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지적 탐구라는 말이 부담될 수 있지만 지적 탐구는 모두의 일상입니다. 개인의 일상의 언어로 순환된 독서는 팀원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지녔습니다. 독후감과 자신의 생각을 팀원과 공유하며 다른 점을 찾았고 그 과정이 저의 생각하는 시야를 넓혀줬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점을 찾으면 공감의 감정이 진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항상 바라왔던 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혼자 독서도 나름의 재미가 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웠기 때문에 독서모임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에 만족스럽습니다.

이제야 독서모임에 참여하여 아쉽다는 생각과 이제라도 독서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공존합니다. 저의 막 학기는 독서모임 덕분에 그 어떤 학기보다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함께한 팀원들에게 고맙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 활동이 오랫동안 저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나를 꿈꾸다

보건관리학과 이소정

하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참여 동기

내가 신청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인 '우수인재와 기업멘토 만남의 장_보건관리학과'는 다음아닌 교수님의 권유로 인해 신청하게 됐다. 2학년의 끝자락 학기를 다니고 있는 지금, 여러 기업에 대한 관심을 한창 키우는 시기였기에 충분히 신청할 동기가 되었다. 그토록 동경하던 보건인 분들의 강의를 들을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떠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후야야 다음과 같은 생각에 빠졌다.

둘,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 또는 효과적인 부분

직접적으로 보건복지에 힘쓰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강의자 분들이 소개해 주셨던 업무가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며 보건인들이 직장터에서 가져야 할 대표적인 마음가짐을 설명해 주셨다. 다음아닌 '친절함'인데 나에게도 어렵지 않은 태도라고 느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도 친절한 사람으로,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를 물론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의 의사소통과 회사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보건과 복지를 다루는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많은 게 자연스러운지라 이 분야에서 일하려면 친절함(=의사소통 능력)은 선택 아닌 필수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요도를 되새기며 하나의 수확을 얻었다.

셋, 해당 비교과 내용의 특성, 유익한 점

나는 평소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이 열리면 시간만 맞을 경우 신청하는 편인데 여러 종사자분들과 혹은 내가 원하는 분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사회에는 언제든지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음을 느끼곤 했다. 이번에 수강한 프로그램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확신을 주었던 이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은 내가 수강했던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건직 종사자분들의 강의를 들을 기회는 국한되어 있기 때문과, 내가 궁금한 질문을 바로 소통 가능한 소중한 기회이므로 유익했던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넷,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강의가 끝나고 후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었다. 그렇게 질문이 오가던 중, 마무리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내게 너무 와닿아 아직까지도 간간이 꺼내 생각하고 있다. 바로 대학생 때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내 주위만 바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많다. 그들을 보며 '나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하며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

었고 20대 초반인 지금에 친구, 가족과의 추억을 더 쌓고 싶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코멘트를 듣고 나서 너무 깊이 공감됐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된 만큼 사회에서 일 할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고 돈을 벌 기회는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다. 너무나 반짝이는 지금 청년의 시기를 굳이 아르바이트를 해 가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깝다는 것에 정말 백 번 공감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함께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언을 해주리라 생각했다.

다섯,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느낀점 및 개인적으로 얻은 교훈, 감동 등

첫 장에서 말했던 '왜 보건인 분들을 동경했느냐'에 대한 답일 수 있겠다. 나는 코로나19를 고등학생 3학년 때 겪었다. 등굣길에는 보건소가 있었기에 한파에 추위를 덜며 줄을 서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비명 소리 같던 찢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보건직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느꼈다. 스쳐 지나가듯 보았기에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 보고 싶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을 '동경'했으며 '흥미'가 생겼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여러 갈래의 학과 중 보건관리학과를 선택해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을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보건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으며 내가 보건관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내가 원하는 회사와 해당 부서에 취업하려면 준비해야 할 여러 자격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나 이 글을 읽게 되는 누군가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려는 길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사람은 참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사소한 것만으로도 봐도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것부터 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직업과 미래 목표, 노후를 계획하는 그런 것들까지.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고 심지어는 주위의 압박까지 받는 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류에 휩싸여 나보다 상대의 의견을 따르거나 묵인되는 때도 있다. 아직까지 없더라도 분명 생기게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선택에 확신하지 못한 채 남의 의견만 수긍하게 된다면 만약 수긍함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경우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어 그런 문제를 막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짊어질 것 또한 말이다. '우수인재와 기업멘토 만남의 장_보건관리학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보건인으로서의 태도와 마음 가짐을 재정립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해 힘 쓸 나를 꿈꿀 수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 할 기회를 준 교수님과 담당자님, 강의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자 한다.

멘토와의 만남에서 미래를 그려보다

약학과 박동원

<프로그램 소개와 참여 동기>

약사는 지역약국 약사, 병원 약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 약사,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교과 과정에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탐방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선 생약학, 약리학, 약제학 등 다양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이것을 수료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 신분에서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하는 것은 힘들고, 많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늘 고민한다.

삼육대학교 취업 진로 지원센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인재와 기업 멘토의 만남의 장'이라는 강의를 열었다. 이는 삼육대를 졸업한 선배가 강사로 초청이 되어, 후배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자리이다. 나는 2022년 여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종근당, 보령 제약, 한독 제약 등 다양한 회사를 방문하면서 제약회사에 관심이 생겼다. 때마침, 삼육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의 임상 부서에서 근무하는 선배의 강의를 개설되었다는 공지를 보았고, 나는 이 강의를 통해 제약회사의 직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다.

<학교가 지원하고 학생이 응답하다>

취업 진로 지원센터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내가 속한 약학과뿐만 아니라 교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먼저 해당 학과에 속하는 여러 선배가 강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과별 인원수에 맞추어 다니엘관의 강의실들을 대여해주었다. 또한 강의가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다과 및 간식을 지원해주었다. 나 또한 10시에 수업을 듣기 시작하여 18시가 조금 안 되어서 수업을 마쳤는데 배고픈 채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마음에 내심 걱정했지만, 참여 학생 전원에게 간식을 지원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다.

삼육대학교 학생들 또한 센터가 마련해준 강의를 많이 수강했다. 약학과외의 경우 강의 전 주 참여 학생을 모집하는 글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막상 강의실에 들어가니 약학과 학생들이 강의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또한 선배님이 한국릴리 임상 부서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틈틈이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기에 우리도 여러 질문을 하면서 각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간접적으로 제약회사를 탐방하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국내와는 다른 해외 제약회사의 성격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로, 릴리에는 미국의 성과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선배님이 일하는 지부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결과를 특히 중요시하는 미국 문화의 영향이 크게

이는 수익을 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도 고려해야 하는 이슈와 맞물려 더 크게 느껴진다. 즉, 임상 부서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약물 투여를 통한 반응 등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약을 제공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영어로 말하는 상황이 일상적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임상 부서에서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어로 된 전문용어와 논문을 읽는 법, 그리고 그것을 동료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선배님은 우리가 학생 때 외국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멘토의 가치관을 배우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지 배울 수 있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건강과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다. 형상이 변하면 관념이 달라진다. 즉, 꾸준하게 우리의 체력을 기르고 몸을 가꾸면 강인한 신체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시간을 올릴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남을 위해 일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배들에게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며>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의 강의를 들으니 제약회사 약사로서의 직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학생이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서 강의가 끝난 뒤에도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소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락망이 생긴다면, 졸업생 선배가 또 다른 선배를 강연자로 초청할 수도 있고 재학생들도 자신의 미래를 더 자세히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강의가 끝나고 주변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 무척 기뻐했다는 동기들의 말이 들렸다. 나 또한 수업을 듣느라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삼육대학교가 마련해준 '멘토와의 만남의 장' 덕분에 졸업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침을 세울 수 있었다.

내가 바로 퀴즈왕?!

물리치료학과 최수현

퀴즈왕 경진대회는 2인 1조로 도전한 참가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풀며 팀별로 경쟁하여 퀴즈왕을 가려내는 프로그램이다. 흔히 상식이라 불리는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해당 방면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물음들까지 폭넓은 퀴즈들을 이 대회를 통해 접하게 된다. 유명한 TV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이나 EBS 장학 퀴즈와 비슷한 느낌이다. 실제 내가 퀴즈왕 경진대회 공고를 보고 참여 신청할 때도 도전 골든벨과 같은 재질의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직접 참여해보니 점수 집계 방식이 도전 골든벨보다는 장학 퀴즈 쪽에 가까운 분위기여서 탈락하는 제도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나에게서는 더욱 좋았다.

사실 시작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다. 머리 아픈 전공과목들만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이 무료해졌고, 시험기간이 다가와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커질수록 더욱 책을 펼쳐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접하게 된 것이 SU-TALK으로 전송된 퀴즈왕 경진대회 안내문이었다. 평소 어린 시절부터 도전 골든벨, 장학 퀴즈, 우리말 겨루기 등의 퀴즈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고 나 자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기에 큰 고민 없이 안내문을 확인할 때 옆에 있던 친구를 설득하여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혹시나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잘 된 일이고, 떨어지더라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이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다.

신청이 접수되고 얼마 후, 예상 문제 파일을 받았다. 예상 문제는 거의 150문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막상 문제를 확인하니 가벼운 마음은 사라지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수많은 문제들 중 나를 가장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제 문제들이었다. 내가 경제에 약하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경제 용어들을 한 번에 마주하니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일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얻어가고 싶지 않아 처음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며 부담 갖지 않고 등하교하는 버스 안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예상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막상 훑어보는 느낌으로 공부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상식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대회는 한 팀을 이루고 있는 2명이 나란히 앉아 진행자가 앞에 띄워진 문제를 읽어주면 답을 상의하여 화이트보드에 적고 20초가 지나면 판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틀리면 바로 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된 60문제를 모두 풀고 팀별 맞힌 문제수를 세어 등수를 가려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덜했다. 특히 내가 헛갈리는 문제가 있어도 옆에 의지할 수 있는 팀원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범위가 많아서 그런지 예상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질문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는 것도 타격이 컸다. 학교 관련, 과학, 경제, 문학, 예술 등 다방면의 정보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나갔다. 시험기간에도 다들 열심히 공부해온 것 같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느꼈던 유익한 점은 우선 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학습하여 상식을 넓힐 수 있었던 학창시절과는 달리 대학생이 되면 자신의 전공에 깊이 있게 몰두하느라 그 외의 것들은 머릿속에 넣기 힘들어진다. 교양과목을 수강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관심사 안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식을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퀴즈왕 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평소 관심이 없던 분야의 정보들도 접하게 되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지식인 또는 교양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바로 협동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의 향상에 있다.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 팀원과 합이 잘 맞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을 믿고 서로 의논하여 답을 찾아가면서 협동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팀워크도 끈끈해진다. 또한 시험기간에 자신의 전공 공부를 챙기면서도 대회 준비를 하려면 스스로 시간 관리와 체력 분배를 잘 해야 한다. 너무 대회 준비에만 힘을 쏟으면 정작 더 중요한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점점 자신에게 맞는 활동 분배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 관리 능력이 증가된다.

퀴즈왕 경진대회는 참여하면 무엇이든 얻어가는 것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내면을 채워주는 지식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흔히 세상은 1등만 알아준다고들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대회 중간에 이벤트 문제들을 준비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경쟁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이벤트 문제들의 난이도는 다양하며, 해당 문제를 맞힌 팀들 중에서 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상품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비록 나는 상품을 받지 못했지만 만약 당첨되었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다. 상품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이 점심시간대인만큼 푸짐한 간식들을 각 팀별로 똑같이 준비하여 먹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했다. 머리를 쓰는 곳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꽤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당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기 문제였다. PPT를 이용하여 여러 효과들을 넣어 열심히 문제를 준비해주셨는데 중간에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 일이 있었다. 그래도 진행자가 문제를 직접 읽어주고 컴퓨터를 금방 고치는 등 바로 대처하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참가자들이 준비를 너무 잘해서 생긴 문제로, 다들 정답을 너무 잘 맞혀서 상위권에서 등수가 갈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예정에 없던 2차 결선이 열리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2차 결선이 진정한 퀴즈왕 경진대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2차에서는 변형 문제를 많이 섞어 문제의 수준도 훨씬 높아지고 답을 적기 위한 시간이 5초로 원래의 4배나 줄어드는 등 대회 자체의 난이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된 덕분에 1차 때보다 박진감이 넘쳤고 진행도 더욱 매끄러웠다. 내가 처음

기대한 모습과 가까워서인지 나는 2차 대회가 더욱 재밌게 기억에 남았다.

퀴즈왕 경진대회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며 내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에 비해 시간과 노력 대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학교생활의 재미라고 생각하여 단기부터 장기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이것저것 참여하는 편인데 나와 달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어려운 전공 공부를 하다가 가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궁금할 때, 조금 더 상식이 가득한 지식인이 되고 싶을 때마다 꾸준히 퀴즈 문제들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퀴즈왕이 될 수 있다.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상을 타지 못하더라도 같이 나간 친구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거나 귀찮다고 느끼는 친구들에게 퀴즈왕 경진대회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이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다방면으로 정보를 가진 지성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아서 넓은 지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알더라도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어 좋았다. 책도 좋아하는 장르만 읽어서 다른 영역에는 거부감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회를 준비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아서 새로운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기분이다. 그동안 내가 참여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습공동체, CTL 삼육 메이트, 전공 연계 봉사활동 등 장기 프로젝트가 더 많았는데 퀴즈왕 경진대회를 하며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외활동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CTL 서포터즈'

항공관광외국어학부 이재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참여 동기

소개할 프로그램은 교육혁신원에서 진행한 'CTL 서포터즈'입니다. 'CTL 서포터즈'란 교육혁신단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많은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주는 활동입니다. 저는 22년도 2학기 CTL 서포터즈 10기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대외활동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대외활동 프로그램이 학교활동을 해본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3학년 때 대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공해보고 싶기도 하였고, 타학과 학생들과 교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니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마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삼육대학교 타학과 학생들과 교류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비교과 내용의 특성과 유익한 점

'CTL 서포터즈'는 서포터즈 특성상 홍보의 임무가 가장 주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SNS에 홍보글을 업로드 해야 할 상황이 자주 존재하고, 홍보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야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SNS활용 역량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분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의 유익한 점의 첫 번째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TL 서포터즈'는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학과별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서포터즈 팀원들은 다양한 학과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타학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으며,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뉴스 제작 실력과 SNS 포스팅 기획력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삼육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서포터즈 초반에는 하나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카드뉴스로 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포스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현재는 카드뉴스 제작 시간은 줄어든 반면에 포스팅의 결과물은 더 우수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물론, 사회에 진출해서도 가장 필요한 역량중 하나인 창의성을 서포터즈 회의를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담당자님과 팀원들과 하는 전체회의와, 팀원끼리 진행하는 팀별회의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부분과 특별한 점

'CTL 서포터즈'의 효과적인 부분은 삼육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기 위해서는 삼육대학교 홈페이지 행사 공고나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될지는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기 중 학업으로 인해 사이트 방문을 한참동안 잊어버릴 때가 많아 참여하고 싶어도 기간을 놓쳐 참여가 어려웠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는 관심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CTL 서포터즈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하는 임무가 많아 자연스럽게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홍보물을 제작해야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내글을 꼼꼼하게 읽게 됩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목만 보고 본인의 전공과 방향이 달라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활동이 안내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행현황을 알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점은 삼육대학교 재학생으로써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 학교적응, 자격증 등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의견을 종합하여 많은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CTL 서포터즈'가 학교생활에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22년도 2학기 퀴즈왕 경진대회 스태프로 참여한 것입니다. 퀴즈 경진대회에 필요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경진대회 현장 스태프로 지원해 처음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준비과정과정이 필요한지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추후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획할 일이 생겼을 때 꼼꼼하고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던 경험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추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CTL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교내외 비교과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과 연계프로그램 수요조사, 홍보물 제작, SNS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팀원끼리 회의를 통해 활동을 진행합니다. 팀원끼리 소통해야할 상황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팀에게 도움이 되고자 안전에 대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깁니다. 또한 활동이 끝나면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느낀 점

저는 코로나 학번으로 일 년 반 동안 학교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2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학교활동도 대면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면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타학과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시간도 가져보고 팀원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저의 의사소통, 창의성, SNS활용역량을 강화시켰다고 느꼈습니다. 23년도에는 CTL 서포터즈의 경험을 살려

대외활동에 도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인적 인재가 될 것
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능동적인 비교과 활동을 원한다면? SU포터즈

경영학과 김수정

SU포터즈 참여 동기와 목표

지난 2022학년도 2학기, 나는 조금 특별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리 대학은 매 학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며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유익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학과 학습과는 별개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학교생활을 채워나가고 있다. 한창 학기가 진행되던 중, SU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수특 메시지를 보게 됐다. 2학년 시절, 비교과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친해진 동기와 함께 팀을 이뤄 SU포터즈 활동에 지원했다.

SU포터즈 활동은 여타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달리, 활동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기획한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SU포터즈는 학생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은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직무와 직업을 깊이 탐구하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SU포터즈에 도전했다.

SU포터즈란?

SU포터즈는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주최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우리 대학 졸업생 선배를 섭외해 관련 직무와 직업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선배 섭외, 콘텐츠 기획 및 수행, 인터뷰, 영상 제작 등 활동 전반을 학생들이 직접 담당한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일자리본부 컨설턴트가 팀당 1명씩 지정된다. 컨설턴트는 콘텐츠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등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팀의 영상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면, 활동 보고회를 진행한다. 각 팀의 콘텐츠를 설명하고, 활동 과정 전반을 리뷰하는 시간이다. 활동 기획 및 제작 과정이 담긴 PPT를 만들고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SU포터즈가 제작한 영상은 삼육대학교 일자리본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조회수와 좋아요 수, 컨설턴트 심사 등을 종합해 1위부터 3위까지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다.

SU포터즈 활동 과정

우리 팀은 '즐거움 우리'라는 뜻의 순우리말, '라운제나'를 팀명으로 선정했고,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순으로 희망 직종을 선택했다. 경영학과의 임태중 교수님의 도움으로 2014년도 졸업 후 현재 2년 차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영학과 선배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전, 15개의 사전 질문을 구성했고 세무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선배 개인의 경험담, 미래 계획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콘텐츠의 풍성함을 위해 노력했다. 선배와는 대략 2시간 동안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전에

준비한 질문 이외에도 현지 세무사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감과 선배가 직접 경험한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해 들을 수 있어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인터뷰 이후 15분 내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영상 제작은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었고, 시험 기간과 겹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콘텐츠의 테마를 설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여러 방향성을 두고 고민했고 팀원과 논의 끝에 인터뷰 내내 밝게 이야기하시던 선배님의 성격을 반영해 귀엽고 통통 튀는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처음 시도한 영상 편집이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노력을 많이 쏟은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SU포터즈 활동이 남긴 것

2020학년도에 입학해 지난 2년 동안 선후배와 교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 때문에 SU포터즈로 활동한 이번 경험이 더욱 인상 깊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세무사라는 직업을 매체에서 접하는 것보다 현직자의 입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듣는 것이 훨씬 유익했다. 우리 팀은 우수 활동자 3팀에 선정되지 못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선배와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간이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거나 진로와 관련된 현직자의 이야기로 듣고 싶어 하는 다른 학우들도 SU포터즈로 활동해보길 추천한다. 학생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생 참여로 이뤄지는 활동이기에 분명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삼육대 퀴즈왕 도전기

컴퓨터공학과 최수영

가슴이 두근거리는 단어 퀴즈왕

학사공지, 장학공지, 행사공지가 북마크의 첫 번째인 나는 어느날과 같이 들어가 참여할 비교과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고, 거기서 퀴즈왕이라는 단어를 보고 들어갔다. 교육혁신원에서 진행되는 퀴즈왕 경진대회는 선착순으로 20팀을 받아 퀴즈를 통해 상금까지 준다는 글을 읽자마자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서명해서 동료가 아니 팀이 되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것도 좋아하고 시사상식과 퀴즈를 좋아하는 내게 정말 딱 맞는 프로그램이라 당일이 기대가 되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데미안 //예상문제 중 발췌

글에 작성된 첨부파일에는 예상 문제가 있었다. 총 140문제가 있었고 솔직히 내가 정확히 아는 문제가 30개 밖에 없어 충격을 받았다. 문제를 짚 살펴보니 삼육대학교, 경제, 지구과학, 상식, 역사, 스포츠, 현상, 문학, 과학 등 여러 가지 테마에 맞는 문제들이 한가득 있었고, 이번 기회에 시사상식이 있는 사람이 돼보고자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최저시급 인상은 5.0,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세계 1차대전을 발발시킨 사라예보 사건, 양도 불이고 가격은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단어들과 개념을 이해하였고 검증을 위해 친구에게 질문을 하라 시켰다. 당연히 받은 대답을 못 했다. 역시 읽는 것만으로는 잘 외워지지 않아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계속 내도록 하였다....

되게 쓸데없지만 재미있는 생각이네! 당장 하자

내가 문제 읽기를 시킨 친구도 시사상식과 퀴즈를 좋아하는 멘사 도전했던 과거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문제를 읽기만 해도 재미를 느꼈었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읽어 줄 수도 없는 것이라 아쉽다고 생각했다. 한데 친구가 갑자기 이 문제들을 엑셀의 매크로 함수를 통해 오지선다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되게 좋은 생각이구나 나한테는 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 친구는 퀴즈왕 대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빈말이겠거니 하고 다음 날 친구가 카톡으로 '다른 답안 4개를 채우느라 힘들었어!' 하며 엑셀 파일을 건네주었다. 아무튼 고맙게 받았고 무한으로 문제를 내고 내가 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무한 반복 학습을 통해 문제의 첫 3단어만 봐도 바로 문제를 써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상금이 눈앞에 보인다!

천외천(天外天)

11월 29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제2 과학관 3층에서 퀴즈왕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시작하기 전 참가자들 거의 전원이 예상 문제들을 출력하여 종이로 외우는 것을 보니 다들 진심인 것이 느껴졌다. 그

렇게 자리에 앉아 교육혁신원에서 제공한 간식도 먹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작된 퀴즈왕 경진대회 총 50개의 문제를 내고 그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 상을 수여한다고 안내하고 화이트보드와 마커를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참가하였던 도전 골든벨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모두 퀴즈왕이 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해서서 거의 틀리는 사람이 문제당 5명 이하였었다. 거의 예상 문제 대로 출제되어서 정말 치열한 접전이 있었고, 38번 문제가 공개되었는데 파노플리 효과를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답하시오였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출문제에는 있었지만, 파노플리 효과를 설명하고 이를 답하는 문제였고 문제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다 외운 사람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물론 나는 못 외웠고 당연히 다 틀렸겠다고 생각했지만, 1팀이 장 보드리야르라는 정확한 답을 제출하면서 1등은 글렀다는 생각과 저분들이라면 1등은 할만하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50문제가 끝나고 대략 생각해보니 3등 상을 받을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2등이 되는 기도를 팀원과 같이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문단에서 계속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

그 결과는 동점자가 많아서 다음 주에 2차전을 하기로 했다. 시간은 흘러 다음주... 퀴즈왕 경진대회 본선이 시작되었다. 들어가면서 긴장되었던 것은 딱 보아도 공부를 잘할 것 같은 학생들이 앉아있고 전에 장 보드리야르 문제를 맞힌 학우님도 자리에 있어서 긴장되었다. 30개의 문제를 통해 순위를 가르게 되었는데, 전공 시험공부를 하느라 추가적인 문제 암기를 하지는 못해서 아는 문제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거나,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렇게 30문제가 마파람 게 눈 감추듯 끝나고 결과의 발표 시간! 결과는... 4등! 아쉽게 상금을 받는 3위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로 마침을 맺었다. 사실 본선을 진행 안 한다면 상금은 받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맞추셨으니 다른 학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성이 공존하였다. 나를 도와준 친구나 팀원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퀴즈왕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비록 수상은 하지 못하였지만 모든 것에 좋은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식을 거루는 대회를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추억과 시사상식을 얻게 되었으니 내게 퀴즈왕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학우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유지되면 좋겠다.

모두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전공연계봉사클럽

인공지능융합학부 서해미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동기

전공연계봉사클럽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서로 뜻이 맞는 같은 전공을 듣는 학생들끼리 모여 지도교수님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학생들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전공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직접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학과 사람들을 모아 신청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단절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었는데, 전공과 관련되어 전공 공부와 실습 활동도 진행할 수 있고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와 봉사활동까지 많은 것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보였다.

프로그램 내용

봉사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해야 나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봉사활동을 수혜받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 언어의 기초적인 문법을 학습하고 멘토링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이에 봉사 대상자들을 인공지능융합학부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선정하고 전공을 학습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켜주고 흥미를 증진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프로그램 진행과정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할 팀을 나누고 팀별로 스터디 진행방식과 일정을 정하였다. 내가 속해있는 팀은 매주 대면으로 모여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매주 Python 수업을 하고 수업 끝나고 같이 퀴즈를 풀고 숙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학과 멘티들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매주 준비하는 시간이 안힘들고 뿌듯했다. 어떻게 알려줘야 이해하기 쉬울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 역시도 많이 학습하고 얻어갈 수 있었던 거 같다.

프로그램 효과

이에 이 봉사활동을 수혜받았던 인공지능융합학부 멘티 학생들은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동기간의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전공과목을 미리 예습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을 수혜한 인공지능융합학부 멘토 학생들은 메타인지를 통한 지식의 흡수와 선후배간의 화합을 얻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하지만 이 전공연계봉사클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약간 아쉽고 개선하고 싶었던 점들이 있었는데 먼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멘토 학생들도 전공 지식이 뛰어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멘토링 봉사활동 전에 충분한 학습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었던 거 같다. 이로 인해 멘토링 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나 질문들에 재빠르게 해결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에 다음번에 진행할 때에는 전공연계 봉사활동 전에 지도교수님과 멘토 학생들이 모여 충분히 전공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멘토링을 진행해야겠다고 깨달았다.

또한, 이번 전공연계봉사클럽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의 기초적인 문법만을 다뤘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심화된 문법과 이를 이용한 간단한 프로젝트 제작을 목표로 멘토링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계획 및 느낀 점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전공에 대해 학습하고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공연계봉사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학과 선배들이 모여 같이 전공과목을 연구하고 이에 이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2023년에도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여 새롭게 들어오는 인공지능융합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작년보다는 좀 더 개선되고 도움이 되는 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해주고자 목표하고 있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학과 학생들도 이 전공연계봉사클럽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학습공동체란 열매

간호학과 **채은주****학습공동체란?**

학습공동체란 학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2학년 1학기 '학습공동체'의 존재 여부를 안 뒤 저는 3학년 2학기까지, 4번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3학년 1학기까지 해왔던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자발적 집단 구성에 의의가 컸다면 이번 학기 학습공동체 활동은 이에 더불어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학습하는 의의까지 더해졌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학습공동체의 매력

제가 느끼는 학습공동체의 매력은 많지만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자기반성 시간 그리고 각 집단이 학습공동체에 부여하는 의미.

저는 그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각 집단이 학습공동체에 부여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습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와 목적은 특정 지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각기 다른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부여됐을 땐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집단이라도 시기와 목적에 따라 해석 방법이 상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집단이 학습공동체에 부여하는 의미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 것이고 학교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각 집단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학습공동체를 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목적'에 집중했으나 이번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 모두의 성적 향상과 꾸준한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게 학습공동체를 '도구' 삼아 활용했습니다. 목적에서 도구로 활용하기까지의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학교의 넓은 포용력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의 지원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습공동체가 주는 '자기반성 시간'은 제 시행착오를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습공동체는 매 차 시마다 보완할 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학기 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학습공동체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성 덕분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학습공동체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모두 수행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수의 인원들과 진행하는 활동에 있어 해당 활동이 마무리되면 스스로 어땠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한순간에 생길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꾸준한 학습공동체 참여가 제게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공동체만의 마지막 매력은 성실함과 책임감입니다. 모든 다짐이 그렇듯 시작은 대부분 꽤나 구체적이고 성대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작의 다짐과 같이 마무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정도이며 하다못해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마무리는 집단에 속한 모든 이들의 성실함과 해당 집단에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학습공동체의 공동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학습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은 상당합니다.

이번 학기 학습공동체가 소중했던 이유

이번 학기는 횡수로 벌써 4번째 학습공동체였습니다. 3번의 학습공동체 활동 후 저는 제가 원하는 학습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학습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의 학습공동체 운영방식과 목표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구성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학기 학습공동체는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습공동체의 목표는 '함께 성장하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잘 아는 부분 혹은 새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아동 간호 과목에서 약물 계산 파트는 함께 머리를 싸매고 2시간씩 고민도 해보고, 한 구성원이 궁금해서 가볍게 한 질문도 진심으로 답해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학습공동체 시간 외에도 되는 날마다 함께 화상 카메라를 켜두고 공부를 하고 공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서로 서로 응원하며 공부하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하는 학습공동체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열심히 준비해와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외부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의 스케줄과 위치를 생각하여 만남 장소를 선정하고 해당 차시 목표를 위한 공부를 미리 해와 모두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여서 각자 공부하는 것 또한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모여서는 셋이서 이야기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운영방식이 순조롭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사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맡은 바를 책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공동체의 소중함은 한 학기를 버텨내는데 그 무엇보다 소중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습공동체를 통해 나만의 그리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겨울의 캠퍼스 글램핑

사회복지학과 조민서

채플 공동체 임원들과 함께 호프 캠프를 다녀왔다. 호프 캠프는 삼육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캠핑 공간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엔 각자의 텐트에서 밤을 보내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잃어버린 '나'와 '우리' 찾기와 나와 우리의 '관계' 찾기를 주요 목표로 한다.

작년에도 두 번이나 참여했지만, 참여할 때마다 학교에서 캠핑한다는 것 자체로 설레게 된다. 학교에서 캠핑이라니. 통학생이라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더더욱 설레는 것 같다. 캠퍼스에서 캄캄한 밤하늘 바라보기 혹은 제명호의 신선한 새벽 공기 같은 것들은 호프 캠프를 하는 날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선배 없이 우리가 후배를 이끌고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다. 선배처럼 나도 1학년 친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1학년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질 생각에 기대되기도 했다.

호프 캠프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알차게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인 만큼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각자 1인용 텐트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자기소개를 작성하고, 나에 대한 하나의 문제를 내기로 했다.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의 내가 된다니 어려웠지만, 곰곰이 생각하며 나의 지난 21년을 천천히 돌아봤다. 작고 어두운 텐트에 혼자 앉아 랜턴을 켜고 펜을 잡으니 괜히 가슴이 촉촉해지는 기분이었다.

작성을 끝내고 다 같이 모여 각자 자기소개를 소리 내어 읽고 자신에 대한 문제를 냈다. 다른 친구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학우들이 낸 문제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고, 내심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학우들을 생각하니 새롭게만 느껴졌다. 내가 모르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귀여웠겠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었고, 지금의 단단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듣게 된 것 같아 대단하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었다. 저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줄 때마다 내게는 그저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라 정말 집중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들 자신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강하게 실감이 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나의 역사를 알려주게 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미래의 내가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화가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게 되었다. 나도 그 친구처럼 매일매일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만들어볼까, 나도 학회장이나 동아리 부장에 한 번 도전해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따라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나만의 무언가 만들어 낼 방법을 고민해야겠다는 결심에 이르렀다.

그리고 호프 '캠프'에 걸맞게 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 시간을 가졌다. 저번에는 캠핑용 1인 버너로 텐트 앞에서 각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이번에는 큰 텐트에 다 같이 모여 라면을 먹었다. 종류도 다양하고 선택권도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우리는 불닭볶음면과 짜파게티를 섞은 불닭게티와 삼양라면을 먹었다. 2022년에 먹은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다. 그 시간이 가장 캠핑에 온 것 같았던 기분이 났다.

밥도 먹고, 다른 활동도 하고, 씻고 돌아와서 큰 텐트에 다시 모여 영화를 봤다. 우리는 영화 '클래식'을 봤다. 어두운 텐트 안에서 빔프로젝트로 상영되는 오래된 영화를 보니 운치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 클래식이라는 영화 자체가 영상미가 좋고, 색감도 아름다워서 더 분위기 있게 느껴졌다. 덕분에 런닝 타임이 2시간이 넘는 긴 영화인 데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다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게 되었던 것 같다.

다음 날에는 그 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맞췄던 문제들로 정해진 술래가 설거지하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술래가 되어서 설거지하게 되었다. 날이 추워서 찬물로 설거지할까 봐 걱정했는데 만나의 집 주방에서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었다. 만나의 집 주방을 구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다 같이 설거지하며 더 돈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에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호프 캠프에 참여해 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안면이 있고 친한 사람들과 단체로 호프 캠프를 신청했는데, 개인이나 친구와 둘이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친해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호프 캠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프 캠프의 목적은 잃어버린 나와 우리 찾기, 우리의 관계 찾기다. 본 목적을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단체 참여도 단체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었다. 다들 단체로도, 개인으로도 학기마다 참여해보길 바란다. 모르는 학우들과 참여해도, 매일 만나는 학우들과 참여해도 모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근본 기획에 감사하다. 함께 참여해주고 즐겁게 다녀와 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 다음 학기에도 또 참여하여 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다!

도전에서 봉사에 이르기까지

물리치료학과 장혜린

도전과 성취의 즐거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고등학생 때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공고를 접하고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저는 무모한 지원을 했습니다. 새롭게 악기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인연을 쌓고 몰랐던 악기인 비올라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시작 또한 같았습니다. 은연중 늘 유기견 보호소 센터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야의 봉사였지만 제가 동아리 회장이 되어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느낀 두 가지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봉사활동을 하면 성취감이 두 배는 상승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배움의 길, 동아리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전공과 관련한 봉사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신청을 미뤄오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은 2022년도 2학기의 시점에 또 동아리인 '팀 리커버리' 내의 전공연계 봉사클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강사님을 초빙하여 마사지 및 테이핑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체육대회 때 학우들을 위한 마사지 부스를 운영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전공과목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마사지와 테이핑을 유명한 강사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교육받고 경험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아픈 손목을 테이핑 해주기도 하고, 방 룸메이트의 아픈 허리를 마사지를 통해 통증을 줄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동아리에 들어온 것이 끝이 아니라, 동아리 내부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도 적용할 줄 안다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연계 봉사를 통한 성장

동아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조별로 테이블을 맡아 치료를 받으러 온 주민분께 마사지와 테이핑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먼저 나서서 치료해 드리기가 어려워 선배들의 도움

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선배들이 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미리 메모 해둔 자료를 가지고 복습해 곧 저도 치료에 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해드리면서 주민분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자세가 안 좋아졌는지, 과거에 다쳤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주민분들과도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실제 사례를 들으며 치료를 해드리니까 임상에 나온 것처럼 물리치료사에 한걸음 나아가 성장했다는 것을 확 체감했습니다. 전공 내용으로 배운 다양한 동작들도 함께 치료에 적용시키면서 동행 해주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치료 후에 주민분이 아픈 곳이 훨씬 괜찮아졌다며 극찬을 해주셨을 땐 뿌듯함과 행복감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반 봉사동아리와 전공연계 봉사동아리의 차이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공연계 봉사동아리는 나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서 후에 가지게 될 진로와도 연관되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에 이어지는 뿌듯함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봉사동아리를 진행하며 배운 것은 전공에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사를 하며 만나게 된 동아리원들, 선배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학 생활을 행복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은 저의 학교생활에 의미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혼자하는 봉사가 아니라 여럿이 하는 봉사인 만큼 서로에게 의지도 하고 질문도 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체육대회 때는 동아리에서 마사지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후였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학우들을 치료해줄 수 있었습니다. 한 학우를 치료해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동아리원 친구와 함께 치료를 진행하다가 치료 도중 저희가 사담으로 나는 이야기(“아~ 쉼리스 땡긴다..”)를 학우분이 듣고 마사지 부스가 종료한 후에 감사하다며 쉼리스를 사와주셨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로 돌만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학우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쉼리스를 사오신 것과 치료에 크게 만족하셨다는 부분에서 크게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치료해 드려야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마무리 소감

꼭 배우고 싶었던 테이핑을 포함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신 치료적 마사지 강의 등을 들으며 저의 전공역량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 주민과 삼육대 학생들을 위해 전공을 활용한 나눔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꾸준한 복습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하고, 나의 부족한 역량들을 자꾸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치료가 되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내가 가진 전공역량을 나눌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 다른 과를 가진 학우분들도 본인의 전공과 연계한 봉사동아리에 가입하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여수기를 마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두려움은 Down, 자신감은 Up!

식품영양학과 정규미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 면접 경험이 3번 이하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할 때도 모두 면접이 없는 전형이었고, 면접 경험은 고등학교 때의 동아리 면접과 대학교에 입학하고 교내 학생자치기구의 면접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면접 경험이 적은 경우, 면접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매우 큼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여러 대학원 면접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한 대학원에서의 예상치 못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와 면접장에 가면 매번 떨기만 하여 본인 어필을 확실히 못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접 잘 보는 법: 수많은 면접 연습과 경험

면접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였습니다. 깔끔한 복장과 자연스러운 표정, 신뢰감 있는 말투, 확실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답변 등 완벽한 면접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매우 많았습니다. 면접 학원은 다니지 않을 생각이라 인터넷에 면접 준비하는 법 등을 검색하였습니다. 면접 전문가의 영상과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많은 면접 연습과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시뮬레이션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발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면접 연습 중 하나이자 문제점을 찾고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어....저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강사님께서 먼저 자기소개하시고 학생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분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듣자마자 “어....저는....”이라고 말하면서 이름과 학과, 학년만 소개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말해야 할지, 1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등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급하게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학생이 어려워했습니다.

실제 면접의 유형대로 1:1, 1:다수 컨설팅 종합적으로 진행!

면접의 유형은 크게 면접관과 면접자의 비율이 1:1, 1:다수, 다수:1, 다수:다수인 면접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면접관이 2~5명으로 다수이고 면접자가 1명이거나 다수인 면접입니다. 면접장에서 면접자가 혼자일 경우, 다른 면접자들의 상황을 알기 쉽지 않기에 본인 어필을 면접관들에게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만약 면접자가 다수일 경우, 다른 면접자와 비교되기 쉽기에 더욱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면접자의 답변에 따른 연계 질문을 받을 수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면접 유형대로 면접관과 면접자가 1:1, 1:다수인 경우 모두 연습합니다.

OOO학생이 면접에서 보완할 점은 1..... 2.... 등이네요.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스스로 작성합니다. 강사님의 선 질문 후 본인이 적은 내용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답변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웃지 않고 너무 딱딱한 표정, 다소 작은 목소리 등 다양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드백해드립니다. 처음 답변하고 나서 받은 피드백은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거의 한 질문에 한 가지 문제점을 고치는 정도로 늦지만 확실하게 고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세하고 확실한 피드백은 학원에 다니거나 전문가와 함께 연습하였을 때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서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면접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감, 중요한 것도 자신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 눈을 보며 이야기할 때 매우 긴장하고 당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면접은 90% 이상 처음 보는 사람이고 본인을 소개하고 어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준비한 대답을 못 하거나 지식 및 문제에 대하여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면접장에서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의 모범답안은?

앞서 언급한 대로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준비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모르는 지식 및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경우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급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격하여 해당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면 열정적인 자세로 배우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처럼 가능성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우선 글쓴이처럼 면접 경험이 적어서 면접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문제점 파악이 필요한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실제 면접처럼 진행하며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한 면접 결과와 다르게 매번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님과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장에 가면 너무 긴장하여 항상 면접 후 아쉬움이 남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면접은 계속 연습하면서 대답도 술술 나오게 되고 긴장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은

면접은 우리가 대학 입시를 하면서 대부분 겪어왔고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하거나 집단에 속하기 위하여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면접은 인생에서 많이 겪게 되고,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경험이 중요하며 이 프로그램 또한 하나의 연습과 경험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큰 도움을 받았으며 매우 만족하였기에 이러한 후기와 함께 많은 학생도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글쓴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모두 성장한 모습으로 펼쳐질 꽃길을 응원합니다.

전공과 연계한 폐의약품 수거 봉사에 참여하다

약학과 윤서진

지난 학기에 글로벌사회혁신원 사회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전공연계봉사클럽'에 참여했습니다. 전공연계봉사클럽이란 같은 학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학과 내 봉사동아리인 '약손' 내에서 정기봉사를 원하는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해 전공연계봉사클럽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봉사에 참여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스스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 약손에서 한 학기동안 진행한 봉사활동은 '폐의약품 수거 봉사'였습니다. 먹다 남은 약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거함까지 찾아가 폐의약품을 버리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폐의약품이 잘 수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손은 4~5명으로 구성된 조로 나뉘어,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조별로 진행했습니다. 첫째로, 폐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 폐의약품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등을 파악하고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이 쉽게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교내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했습니다.

1학년 4명으로 구성된 저희 조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설문조사를 위한 문항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약손 임원진 선배들이 보내주신 논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특히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일지 분석한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조원 각자 문항을 만들어 오기로 하였고, 저는 응답자가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만약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에 동참한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편리했는지 등을 묻는 내용 중심으로 문항을 제작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선배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항선택형, 양자택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았고, 응답자의 능력을 고려해 쉽고 간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항을 수합한 이후 설문조사를 위한 네이버 폼을 만들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사랑나눔공간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서관 앞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간식을 주겠다고 하면 먼저 관심을 보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관 주변에서 설문조사 QR코드지와 폐의약품 수거 안내 포스터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원들과 함께여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막상 말을 걸면 선뜻 요청에 응해 주는 사람도 많아 감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마치고 힘을 합쳐 천막과 테이블,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까지 수행하며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손에서 진행한 캠페인 덕분에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아 이 봉사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와 동시에 폐의약품 수거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교내에 설치할 폐의약품 수거함과 안내판을 제작했습니다.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튼튼한 플라스틱 통으로 제작했고, 버려진 약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궜어 놓았습니다. 전공연계봉사클럽으로서 봉사를 진행한 덕분에 지원 비용으로 수거함을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거함의 곁에는 동아리 약손의 로고와 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을 프린트해 부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완성한 수거함과 안내판을 다니엘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약 40일 뒤 수거함을 가져와 폐의약품을 수거했습니다. 한 눈에도 알약이 많아 보였고, 이 알약을 분류해 보면 폐의약품 실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실제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포장지를 벗기지 않은 것도 포함해 400개 이상의 알약이 있었는데, 모양이 같은 약끼리 분류한 뒤, 약의 식별정보를 입력해 상품명을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각 의약품이 몇 개나 수거되었는지 나열한 뒤에, 약효에 따라 분류했고, 그 결과 해열, 진통, 소염제가 가장 많이 수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 데이터에서도 해열, 진통, 소염제를 65.7%의 높은 비율로 구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구비 중인 약이 그대로 폐의약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조원 중 한 명이 실제로 전공수업인 '약학통계'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 중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해, 독립변수를 여러 개로 바꿔 가며 '구비 중인 의약품의 투약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약품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빈도에 따라 투약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약학통계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통계분석은 연구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지 않는다면 크게 쓸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과 연계한 봉사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의미 있는 봉사에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과 연계한 봉사는 처음이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약학통계 학습에 대한 의욕이 커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약손의 밤' 행사를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약손의 밤'은 우드락 홍보물을 가지고 각 조의 활동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폐의약품 분류 결과와 통계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우드락을 꾸며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른 조들의 발표를 유심히 들으며 선배들과 동기들은 폐의약품 실태에 대해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약학도로서 함께 폐의약품에 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한다고 느꼈습니다.

전공연계봉사클럽에 참여하기 전, 폐의약품 처리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폐의약품 처리 실태를 알리고 수거까지 실천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봉사'하면 요양원 봉사나 연탄 봉사 등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봉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사라는 직업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이 들던 시기에 봉사를 하게 되어, 약사는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험으로 바탕으로, 앞으로 약사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이나 의약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약학과 학생으로서 학과에 더욱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멋진 약사가 되기 위해 전공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꾸준히 천보당만보당

동물자원과학과 남하연

천보당만보당이라는 프로그램은 1학기에 참여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21학번까지는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이라 22학번인 나는 필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 후 첫 학기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에 5,000보 이상 걸은 기록을 35일 중 25일 이상 기록하고 매일 올라오는 성찰 질문을 주에 1회 작성하고 최종 소감문을 제출하면 이수된다. 또한 35일을 모두 인증하게 되면 천보당만보당 굿즈를 받을 수 있었다. 나도 이 35일을 모두 채워 굿즈를 받는 것이 목표였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하루에 5,000보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매일 5,000보를 걷는 것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며칠동안은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5,000보 걷기는 앞으로도 습관을 들여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다. 1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거의 없었다. 특히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없다 보니 근처에 친구도 없기 때문에 기숙사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다. 낯선 곳에서 혼자 방에 있다 보니 우울해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졌다. 그런데 천보당만보당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이뤄야 할 목표가 생겼다. 하루에 5,000보를 걷기 위해서 늘 저녁마다 저녁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사라졌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그게 점차 쌓여 뿌듯함으로 다가왔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써야 하는 성찰 일기는 가끔 나를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질문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어떤 날은 아주 간단히 답변이 떠올랐지만 또 어떤 날은 쉬운 질문임에도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답변을 하지 어렵기도 했다. 내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질문은 바로 '나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이라는 질문이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항상 어렵다. 특히 이 질문을 받은 시점은 기숙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때라 이 질문에 대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적었다. 이 성찰 일기는 게시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답변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재밌기도 했다.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보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대면 활동 없이도 충분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것 같다. 코로나로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모두가 집 밖으로 나갈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이 천보당만보당을 이수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성찰 질문을 통해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하루이더라도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

면서 보내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하루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매일 이루어서 살면 더욱더 멋진 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비록 프로그램 초반에 세운 35일 동안 인증해서 천보당만보당 굿즈 받기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했던 노력들을 생각하면 절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은 않다. 혹시 다음번에 천보당만보당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고 아직 천보당만보당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Redesign Society For All (모두를 위한 사회 재구조화)

경영정보학과 이유헌

[학습공동체에 대한 소개 및 참여 동기]

학습공동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학습활동으로 학습경험을 공유하여 자기주도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팀 활동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계발 학습공동체로 교외 공모전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KOSAC)'을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외 공모전을 도전하게 된 계기는 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기획에서부터 아이디어 실행, 리더십, 위기 극복 관리 능력까지 경험해보면서 얻는 인사이트들을 배우기 위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학습공동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

학습공동체를 통해 참여한 공모전 주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주세요."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어 이에 걸맞은 조사와 캠페인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특히, 의미 있었던 활동은 '장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다.'는 의견을 팀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핵심 주제로 삼자는 방향성이 만들어졌을 때이다. 우리가 만드는 인식 개선 캠페인인 만큼 각자의 생각보다 생각을 실시간으로 나누며 함께 만들어 내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 이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공동체 활동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효과를 느낀 점은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하여 담당 교수님, 사회복지 교수님, 삼육대학교 장애지원센터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어떤 해결방안을 만들지 다양한 팀원들간의 의견 수렴과 개선 방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분들과 관련자분들 이야기를 우리의 주제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도 팀이기에 더욱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팀 활동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킹, 주제 시장 조사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본 것이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의자와 책상에 앉아보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용 키보드를 사용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캠페인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 후 어떤 생각을 변화하게 되었는지도 알아보았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남들에게 여유를 베풀 수 있는 아량과 지식을 함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갈등은 모르기에 체험을 통해 알아야 하고, 함께 알아가면서 천천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체험을 통해 알리고, 한 번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점이었기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

[학습공동체는 모두를 위한 사회 재구조화]

우리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사회를 재구조화하자는 'Redesign society for all'로 정하게 되었다. 사회갈등은 사회구조와 인식에 있으며 단순히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학습공동체 활동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학습공동체 활동은 팀 구성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아이디어 과정을 통해 토론하고, 질문을 공유하고, 공유된 질문을 해결하면서 자율적인 상호적 학습활동이 일어난다. 불편하지만 서로의 학습에 관여하면서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팀을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습공동체는 공동체를 재구조화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해보는 경험은 대학생들 중에도,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습공동체를 추천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의 성과와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다. 또한, 매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매 회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고하고, 재구조화하여 도약할 수 있다.

[혼자서는 작은 한 방울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를 만든다.]

학습 공동체를 마치면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쉽게도 지역대회 예선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낙담하거나 위로를 건네는 대신 어떤 부분에서 보안을 해야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었는지 분석해보았다. 코삭 공모전 심사위원분들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심사평에 대해 각자 어떻게 느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끼리 어떤 점이 부족했고 다음 번에는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할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력적인 하나의 컨셉 슬로건과 주제 핵심 타겟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좋았으나 보다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위해서는 타겟, 혹은 인사이트 측면에서 한 두 단계 더 좁힌, 명확한 타겟과 콘셉트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동일한 팀 구성으로 다음 공모전에 도전하기 위해 우리가 더 발전하고 노력해야하는 점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서는 작은 한 방울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를 만든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성적이 아닌 공모전 참여라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무언가를 혼자서 시작할 때는 용기와 실천력이 몇 배로 필요하지만, 다 함께 실천하면 몇 배로 얻게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뒤쳐질 때는 팀원들이 이끌어주었고, 친구들이 힘들 때는 팀장으로서 동기부여하며 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개개인이 힘을 합쳐 팀으로써 함께 이뤄내는 것은 이번 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평범한 세 명의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기적같은 경험을 '학습공동체'를 통해 많은 학우들이 경험해보았으면 한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

음악학과 황인우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심리검사]

내 성격을 더 자세히 알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본인의 성격을 알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학생 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심리검사를 추천한다. 검사는 사전에 메일로 발송되며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대인관계 검사를 통해 내 정확한 성격유형과 나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내 대인관계 능력이 안정적이고 사교적이라는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주의할 부분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부분이 많이 오픈하는 편인데 이를 조절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해주셨다. 나는 내가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새로운 집단에 어울리지 못할 줄 알았고 이가 항상 고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고 상담에 참여해보니 고민이 해결되었다.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다]

심리상담은 나에게 어려운 이미지였다. 나를 마주하고 내 단점을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절한 상담사분 덕분에 나를 편하게 마주할 수 있었고 나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심리치료에 대한 선입견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나에게 심리치료는 일반적인 사회적 이미지와 내 선입견이 합쳐져 안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었다. 심리치료는 정신병 같은 부정적이고 심각한 이미지로 박혀 있었으며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으로 이런 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내 편견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상담받기를 뒤로 했는데 교내에도 학생 상담센터라는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언제든 힘들면 학생 상담센터를 방문해 기대도 된다고 하셨다. 이러한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언제든 힘이 들 때, 학생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힘이 되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이 가능한 상담]

해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선택해 선택한 대로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 같은 경우는 학교와 집이 멀어 통학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방학 중에 진행되는 만큼 학교에 오는 게 힘들 것이라 예상해 배려해준 점이 좋았다.

[정확한 엠비티아이]

정식 엠비티아이를 검사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도 내 정확한 엠비티

아이가 궁금해 참여하게 되었다.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엠비티아이와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싶었고 이에 1학년 맞춤형 심리검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식 검사를 받으니 인터넷으로 받았던 것이 엠비티아이 검사와 차이가 있었다. 내가 다른 유형의 엠비티아이의 기질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엠비티아이가 성격유형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내가 주로 갖고 있으며 사용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유형이 아닌 유형이라고 다른 유형의 성격을 아예 안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검사를 통해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검사에 대해 만족한다.

[확대됐으면 하는 상담프로그램]

집단으로 상담받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내 상처를 남과 공유하면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 상처를 남과 공유하고 이런 고민을 듣는 상대가 그런 고민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겪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다.

서로의 고민을 공감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면 치유 효과도 몇 배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상담받아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담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육체에 감기를 앓듯이 마음에도 감기가 찾아올 수 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많지만, 정신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담을 받으면 마음의 큰 병인 우울증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받으면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방학 중에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한다. 학교와 집이 먼 통학러들은 학교까지 가는 길이 멀어 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는 이수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다.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아도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 신청도 전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겪는 동기들이 내 주변에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방학 중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버섯과 우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차은빈

#취업동아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김유선 교수님의 모집으로 취업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다. 본래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던 터라 실제로 스마트팜을 운영해보고 관리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바쁜 학기 중에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었다. 흔히 사망년이라고도 불리는 3학년이란 시간에, 1년간 진행하는 활동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학과 친구들과 같은 목표를 위해 의논하고 노력할 기회는 이미 2년이란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버린 나에게는 다신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망설임 끝에 지원하였다. 동아리는 환경디자인원예학과의 김유선 교수님과 화학생명과학과의 황윤정 교수님을 주축으로 하여 인원을 모집하였다. 때문에 다른 과의 친구와 함께 동아리 활동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도에서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란 고도화된 식물공장이며, 현재까지의 시설원예에 있어 가장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 재배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유전, 환경, 재배기술) 중 하나인 환경을 제어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거부터 계속되었다. 멀칭을 해주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나아가 온실을 만들며 시설원예는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그리고 결국 적은 공간에서 최대의 수량을 창출해내기 위해 식물공장이 나왔고 이는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화하고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스마트팜으로 발전했다. 일반적인 스마트팜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채소 작물을 수경재배를 통해 최상의 환경에서, 빠르고 청결하게 재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우리가 공간을 빌린 에코팜센터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상추와 딸기, 다육식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었다.

#버섯

일반적으로 수경재배를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것과는 구별되게, 우리는 버섯을 재배하였다. 버섯은 식물이 아닌 균류로 일반적인 식물 재배와는 그 방식이 다르지만 스마트팜에서 편하고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광과 토양 수분, 비교적 고온이 적절한 환경 조건인 식물과는 달리 버섯은 광이 필요 없으며 대기 수분과 저온이 충족되는 조건이 적절한 환경이다. 때문에 버섯은 균이 접촉된 배지를 통해 재배한다. 이 배지는 3차례 정도 재배하면 새로운 배지로 갈아줘야 하는데, 이는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하는 식물과 달리 버섯은 양분을 흡수해 성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3번의 재배가 끝나면 배지 내의 양분이 부족해져 정상적으로 상품 가치 있는 버섯의 재배가 불가하다.

#버섯재배

우리의 버섯 재배는 다음의 단계로 이뤄졌다.

▷ 배지 입고

: 버섯을 재배할 배지가 배송 온 후 동아리원들은 시간을 맞춰 배지를 스마트팜 내부로 옮겼고, 스마트팜 내부의 온습도를 버섯 재배에 맞게 설정했다.

▷ 침봉(2,3차 생육)

: 1차 생육 때는 배지에 수분이 흡수된 상태였기에 필요치 않았지만 2, 3차 생육 시에는 1차 생육으로 소실된 배지 내의 수분을 다시 주입시켜줘야 했기 때문에 이전 생육 후 휴지기를 거침 후 침봉 과정이 필요하다. 침봉은 배지에 수분관을 꽂아 배지가 충분히 무거워질 때까지 수분을 주입하면 된다.

▷ 생육기

: 버섯이 자란 것이 확인된 후에는 핸드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지만 컨테이너 자체의 문제로 조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리원들끼리 시간을 조정하여 주기적으로 직접 생육을 확인했다.

이후 버섯이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로 자란 뒤 10~15°C 유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내부의 환경을 조절했다.

▷ 숙아내기

: 버섯이 모여서 자란 경우 상품성 있는 버섯을 수확하기 위해 작고 모양이 이상하게 자란 버섯을 제거해줬다. 버섯을 숙아낼 때는 일반적으로 버섯 칼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주지만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면 배지가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 손으로 떼어내었다.

▷ 수확

: 버섯은 갓이 완전히 핀 뒤에는 맛이 떨어지므로 갓이 다 피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해주었다. 수확 과정은 숙아내기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떼어내 줬는데, 이때 버섯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수확하였다.

▷ 휴지기

: 수확 후 다음 생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온도는 10°C이하, 습도는 0~30%의 조건에서 10~25일 정도의 휴식기간을 가져줘야 한다. 우리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5~18일 정도의 휴식기간을 가진 후 다음 생육을 진행하였다.

#목표

기존 동아리 개설 당시 물류와 판매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까지 목표였다. 때문에 경험적으로 1차 생육을 한 후 2차 생육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포장 용기를 준비하고 판매를 위해 버섯의 이름, 상품 설명 등을 토의를 거쳐 정했으며 상품을 대표할만한 캐릭터를 고안하여 스티커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스마트팜은 컨테이너 박스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서 완벽히 자유롭기 어려웠다. 또한 스마트팜 내부의 수분 관리의 문제로 외부에서 가습기를 동원하여 매일 습도 체크를 직접 해야 했다. 총 4번의 생육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품질이 일정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버섯이 재배되지 않아 판매에 실패하였다. 판매를 목표로 한 취업동아리로서는 실패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성과였다.

그러나 4번의 생육 과정에서 우리 동아리원들은 버섯의 생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고온에서 버섯이 얼마나 빠르고 크게 자라는지, 생육 단계에서 낮은 습도가 유지되면 버섯의 크기가 작게 자랐고 갓이 빠르게 피고 버섯한 버섯이 재배되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복된 생육에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원들과 고심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비록 기준에 목표했던 것에는 실패했지만, 목표하지 않았던 것에서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교육봉사와의 연계

비록 상품성 있는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교육 봉사와의 연계하여 중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스마트팜과 버섯 재배에 대한 교육 봉사를 하였다. 동아리원들 중 시간이 되는 이들이 모여 교육을 위해 5~10분 정도의 강의를 준비하고 스마트팜 내부의 환경을 보고 직접 버섯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접 버섯을 수확해보고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먹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판매에 실패한 버섯들은 교육생들의 실습용으로 이용되었다. 비록 초기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스마트팜에 대해 이해하고 장점을 배우는 기회로 사용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 달성보다 중요한 가치인 스마트팜과 그 인공적인 재배환경에 대한 오해와 공포를 없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믿음만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느낀점

일년간의 취업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활동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초기의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였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우리의 실패는 단순히 실패에서 끝나지 않았다. 생육과정에서 거듭된 실패와 새로운 문제점들은 다음 차례에서 계속 나아졌고 해결되어 갔다. 심지어 우리가 결국 성공이라는 자식을 낳지는 못했더라도, 우리는 실패의 경험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 1년간의 대장정 끝에, 취업동아리의 마지막이 성공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가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각자 달랐다. 취업에 관해서 나의 목표는 종자나 육종에 관련하여 연구직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는 조경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도 있었고, 비료회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도 있었다. 심지어는 식물에는 아예 관련 없는 계열로 취업을 원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랬던 우리가 뭉쳐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대학교와 외한 있는 팀 프로젝트와는 비슷한 듯, 사뭇 달랐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동아리였고, 각자가 지향하는 목표마저 달랐기에 처음의 우리들은 언타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이해하며 각자의 관심사와 지식을 교환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수토리 챌린지와 함께라면

건축학과 박진아

팔굽혀펴기, 무릎을 대고도 하나도 못하던 과거의 나, 지금은 정자세로 여러 개도 거뜬히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성찰도 하며 자신감도 up! 수토리와 함께하는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많은 글을 찾아봐도 나도 가능할까? 고민하며 와닿지 않았던 당신! 근처의 삼육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수토리 챌린지와 함께라면 너도 할수있어!

때는 22년 5월.. 중간고사 기간에 실연을 당하고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 컸던 때였습니다. 실연의 슬픔을 이겨내고자 바쁘게 살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과 공모전을 찾아보려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던 중 수토리 챌린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토리(SUtory) 30일 챌린지! 삼육대학교에는 포트폴리오와 SNS로 이용이 가능한 SUtory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공모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나만의 30일 챌린지 목표를 공유하고 과정과 결과를 수토리에 업로드만 해도 삼남이 머그컵이랑 장학금까지 준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MBTI J로서 목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저에게 딱 맞는 공모전이구나 하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당시 두 가지 분야를 골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관련 목표와 생활습관 관련 목표가 있었는데, 학습 목표는 항상 계획을 세워서 과탐도 하고 토익 목표도 이루고 이미 어느 정도 습관 형성이 되어있다고 생각해서 생활습관 관련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생활습관 형성 목표로 어떤 목표를 정할까 내가 30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동경해오던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한 개를 해보는 게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0개에서 1개 하기 블로그 후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목표를 세우고 따라 해봤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 해봐도 전혀 한 개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던 나날들.. 매일매일 운동하는 습관도 기를 겸 수토리 참여하는 동안 한 개가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보면 어떨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위한 달인네 그 목표는?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늘려주세요!
무엇이든 하면서 꾸준히 해주세요!

1단계: 월 연대 무인업 / 월 사이드 무인업 12회씩 3세트
1단계 달성 기준 20회씩 3세트 가능할 때 까지
2단계: 연대 무인업 / 사이드 무인업 / 기본 무인업 12회씩 3세트
2단계 달성 기준 20회씩 3세트 가능할 때 까지
3단계: 본격적으로 배악에서 무인업 연습하기 !!

일찍에는 매일매일 한 번은 적어가고 해요!
운동 할 때는 반드시 조인해주셔도 좋아요 !!
목표 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해기 근육이지만...
나중에 30일 프로젝트 끝나고 학교 사진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
노력대로 볼 수 있도록 !! 화이팅!!

#수토리공모전 #30일챌린지 #우유할 한 개 하는 그날까지.

수토리 공모전 참여 첫 번째 글 중 일부입니다. 학업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는 다르게 세웠습니다. 학업 계획은 목표로 하는 책을 정하고 그 책을 어떻게 목표하는 일정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배분하여 세웠지만, 운동 계획은 제 운동 수행 능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그날그날 최대한 가능한 횟수로 수행하며 적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틀 안에서 진행할지는 정해두었어요. 유튜브를 참고하여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운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수토리 공모전과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른 점은 역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표와 계획들을 보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보면서 배워갈 수도 있었고, 댓글로 제 목표를 응원해주는 학우분들에게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가볍던 마음에서 각오에 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해야지 하는 사람들 특, 처음에 근육통 좀 와서 고생하다가 점점 운동과 멀어지기.. 처음에는 벽에서 연습을 하라는 것에 솔직히 이걸 한다고 늘긴 늘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근육통도 오고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운동하며 중간중간 다른 운동도 섞어서 해주었는데, 그런 사진들도 하나씩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찾느라 헤맸고, 점점 개수가 증가하면서 기분이 좋았지만 그만큼 정체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되기는 될까 도움이 되는 걸까.. 하지만 우리 수토리 챌린지는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단계로 벽에서 연습해보았습니다!
안해봤었던 운동이라 그런지
보지않던 힘만 얻더라고요 !!
벽이로 근육통이 왔던 ㅋㅋㅋ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서 일명 다들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휴일에 리포지션은 배행로도 다녀왔습니다!
다들 날에 물을 채 한만 다들당시는데 이럴지도 !!
물자가 부족해서!!

중간점검을 했던 글입니다. 시작일과 마지막 날에만 글을 올렸다면 그냥 포기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글을 올려야 하다 보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며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구나 보며 동기부여가 되면서 작성삼일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컸던 건 이전에는 다이어리로 항상 계획을 세웠는데 수토리 챌린지용 달력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남이가 그려져 있는 귀여운 달력을 꾸미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쉬어갈 수 있는 스티커까지! 그리고 목표를 이룬 나에게 주는 보상도 정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면 할 정도였어요

마지막 후기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하고 막 영상편집도 해보고 대망의 팔굽혀펴기! 도전해봤지만 정자세 한 개로 하기는 그렇지만 전에는 아예 안됐었는데 어설픈게라도 한 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래도 30일 동안 꾸준히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조금만 더 하면 정자세 한 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달에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5~6개도 한 번에 이어져 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한 개도 못하던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목표는 세우지만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던 나에게 나도 꾸준히 하면 해낼 수 있구나, 이런 내가 대견하고 내 안의 빛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항상 도전했지만 여러 번 실패하며 '에이 나는 한 개도 할 수 없어, 못하는구나' 하고 크나큰 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벽을 넘어 가족들에게 보여줬을 때 처음엔 못 믿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글을 본 너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수토리 관련 공모전도 많으니 꼭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익을 응시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는 걸 추천한다

경영학과 박소현

토익은 취업에 있어서 필수이다. 어학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토익을 공부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점수를 넘으려고 노력한다.

거의 필수라고 봐도 되는 시험인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할까. 응시료가 약 5만원이기 때문에 결제할 때마다 손이 떨린다. 그리고 토익 기출문제는 출제사인 YBM에서만 유출이 가능해서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는 YBM기출 문제집을 사거나 시험을 응시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집 구매 비용이 최소 2만원이상이다.

한번 토익시험을 봤을 때 만족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응시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 시험의 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마침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의토익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소식을 수톡을 통해 들었다. 응시료 2000원만 내면 실제 토익시험처럼 볼 수 있다. 이런 기회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신청했다.

시험은 다니엘관 지하 1층에 있는 B102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앞의 스크린에서는 OMR 작성 방법과 타이머가 있었다.

모의 시험은 실제 시험과 똑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LC부터 하고 끝난 직후 RC가 시작되었다.

실제 시험장은 중학교고 모의 시험장은 대학교라서 시험장 자체가 조금 다르지만 그 외의 **환경은 똑같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실력 그대로 뽐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제일 좋은 점은 샤프로 OMR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같다는 거다.

토익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학우들은 당황스러운 점이 생길 것이다. 토익 시험은 무조건 샤프나 연필로만 OMR정답 체크가 가능하다. 컴퓨터싸인펜으로 필기가 불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망친 사례를 많이 보았다.

이 모의시험을 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해보았기 때문에 실전에는 무사히 필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작년 모의시험에는 시험 점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점수를 알려줘서 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좋았다. 어느 파트에서 오답이 있는건지 알 수 없어 아쉽지만, 실제 시험처럼 LC와 RC점수를 각각 알려줘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대강 알 수 있다.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개인적인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LC에서는 듣지 못해서 정답을 확신하지 않은 문제의 번호를 외우고, RC에서는 지문을 3번 이상 읽은 문제의 번호를 외우는 것이다.**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 많아 외우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특히나 어려웠던 문제의 번호를 외우면 된다. 나머지 문제들은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혹여나 모의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 점수가 너무 안 나올까봐 걱정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실전 시험을 치르다가 모의시험을 치렀을 때 모의쪽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음을 느꼈다. 이걸 다른 응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의'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보았으면 좋겠다.

4월 모의시험을 본 결과 총 990점 만점 중 820점이 나왔다. 처음 받아본 800점대 점수에 매우 좋아했다. 나는 RC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YBM 토익 RC기출문제집을 구매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3개월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풀면서 모의시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실제 시험에서 865점을 얻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덕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에서 어학시험 점수 만점을 얻을 수 있었다(850점 이상이면 만점으로 처리).

토익시험을 응시하고자 한다면 꼭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을 해보길 권한다. 물론, 실제 시험을 응시하고 학교에 인증을 하면 일부 응시료를 지원받지만, 1학기에 3번 한정인데다가 준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실전 시험을 보기에는 아까운 기회이다.

이 프로그램은 숨겨져있는 꿀팁과도 같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모의 시험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만큼 시험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부담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호프캠프로 되돌아본 나

사회복지학과 김태선

가을은 캠핑의 계절이다. 사람들은 캠핑장이나 산으로 떠난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다. 바로 삼육대학교이다. 캠핑의 이름은 호프 캠프이다. 호프 캠프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사회혁신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주제는 '나'이다. 자신을 탐색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삼육마을 드림세탁이라는 동아리장으로서, 공동 동아리장인 언니와 삼육마을 내에 다같이 친해지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다. 당시 삼육마을 내에서 드림세탁이라는 동아리는 나와 나의 친구 몇 명, 공동 동아리장인 언니와 그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대면으로 만난 것에 부족으로 서로 친할 기회가 없었다. 이로 인해서 단체 대면회의 때, 어색함이 흘러나왔다. 또한 드림세탁 동아리 내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했다. 참여율 저조는 동기 부족에서 비롯되어 보였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

다른 동아리와 연합으로 같이 하려고 했으나, 다른 동아리팀의 취소로 인해서 호프 캠프 참석이 가능했던 나와 내 친구들, 공동 동아리장 언니와 그 친구들만이 참석하게 되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하나의 부스 같은 텐트는 나름의 감성을 만들어냈다. 도착하자마자 텐트에 짐을 놓았다. 다소 추운 날씨에 나에게 걱정을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이런 날씨에 캠핑하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 도착하고,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다. 간단한 게임은 수건돌리기였다. 수건돌리기는 직접 수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대신하여서 다음날 설거지 당번을 정하는 식이었다. 서로의 어렸을 때의 사진을 맞춰야 했는데, 수련 선생님은 엄청 잘 맞추셨다. 그래서 사람이 눈썰미가 남다른 것 같았다. 이걸로 처음 수건돌리기를 할 사람을 정했다.

대망의 저녁은 라면이었다. 먼저 신라면과 짜파구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신라면 물을 잘못 맞춰서 신라면을 결국 4봉을 끓이고, 짜파구리는 2봉 만들었다. 사람이 총 6명인데, 한 명만 한 봉씩은 먹은 셈이 되었다. 그리고 배달로 김밥과 치킨을 시켰다. 치킨을 세 마리나 시켰는데, 엄청 맛이 있었다. 특히, 짜파구리와 bhc의 치킨인 뿌링클의 조합은 최고였다. 뿌링클의 달달함과 짜파구리의 약간의 짠맛은 최고였다. 많이 먹은 탓인지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도 남은 시간에 근처를 산책했다.

사실 저녁을 먹기 전에 우리는 나에게 대한 편지를 작성했다. 과거의 나에게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5살의 나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생각들이 떠올랐다. 물론 어린 나이이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 관련 기억들이 있었다. 그런 기억들 중에 상당수는 놀았던 것이었다. 놀이터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말이다. 그런데, 할머니와 살면서 상처받는 것이 있었다. 당시의 나는 할머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그렇기에 당연히 잔소리를 들을 만은 하다. 그런데, 당시 나는 계속 그렇게만 잔소리하며, 구박하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와의 오해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나는 기말고사 기간에 할머니의 생신 파티에 가지 못했다. 엄마와의 통화에서 할머니가 자식들의 손자 혹은 손녀가 한 명씩 다 빠졌다고 서운하다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다. 거기에 태선이기도 오지 않아서 서운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감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리학에서는 어른이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 이 아이는 즉, 자아이다. 이 자아에게 자꾸만 나무라게 된다면 자아는 계속 위축될 것이다. 나에게 아직 그 어린아이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았다.

용서의 나라라는 책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다시 만나며, 여성은 그를 용서한다. 그리고 대화를 하며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다. 그녀는 계속 말하길, 용서하는 것만이 답이었다고 말한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싫어해봤자 살날이 나보다 짧은 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서로의 바쁨으로 자꾸만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은 '용서'이다. 사랑할수록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되지 못한다. 용서는 나에게 하나의 벽이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 싶었다.

호프 캠프에서 게임 후에 영화 한 편을 보았다. 영화 이름은 클래식으로 조인성과 손예진의 사랑 이야기다. 둘은 엇갈렸지만, 마지막에 결국 사랑이 통한다. 하지만, 손예진의 엄마는 사랑에 실패한다. 열정적으로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막는 벽이 있었다. 영화를 보고, 삶을 살면서 '사랑'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비교인에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이다. 그는 사랑을 베풀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었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사랑을 물어봤다. 다들 사랑이 모른다고 했다. 나는 사랑을 하면서 깨달았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를 사랑한다고 자신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착, 스토킹, 가스라이팅 등은 사랑이 아닌 범죄로 취급받게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리지 못한 미련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는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최후의 선택도 각오한다. 용서의 나라의 책에서는 그를 이성적으로 가 아닌 그를 이웃으로 사랑하여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 과거를 되돌아봤자, 그러한 과거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용서하고 다잡으려고 한다. 나도 이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사랑으로, 인간으로 대하며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물론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힘들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제 21살을 맞이한 시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용서할 것이다.

호프 캠프를 통해 진정한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나 자신의 상처, 과거 등은 나를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만약에 호프 캠프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나 선배가 있다면 추천해 줄 것 같다.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도 쌓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다고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자신보다는 남이 바라보는 자신에 더욱 신경을 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엔 인생도 자신의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진정한 성장의 발걸음을 호프 캠프는 가져다주었다.

그린토피아(플로깅)에 참여하고 난 후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정혜원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동기

'그린토피아'는 플로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로깅'이란 '이삭 등을 줍는다'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ploc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를 하며 쓰레기 줍는 것을 말한다. 그린토피아는 하루 7,000보 걷기, 쓰레기 한 봉지 이상 줍는 것이 활동이었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길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를 정화 시키는 일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 생각하였고 조깅을 하면서 운동도 함께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나의 조그마한 노력이 지구의 건강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였다.

해당 비교과 내용의 특성과 유익한 점

이 비교과 프로그램은 환경 정화와 동시에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매우 유익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를 주울 때 취하는 자세는 마치 런지(Lunge) 자세와 유사하다. 런지는 하체 운동 중 하나로써 하체의 힘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또한, 달리기와 걷기를 동행하면 운동의 효과는 배가 된다. 평소엔 갖는 핑계를 대며 하지 않았던 운동을 환경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땅은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땅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다시 우리의 몸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공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었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부분

요즘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활동들과 생각들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내 주위 사람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지만 어떻게 환경 보호를 시작해야 할지 어려워한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일상에서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큰 효과를 내는 플로깅은 간단하고 쉬운 활동이라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그린토피아를 통해 사람들은 플로깅의 효과를 알아가고, 앞으로 지속적인 플로깅을 통해 지구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플로깅에 대해 조금 지켜갈 때쯤 다시 나를 일으켜준 에피소드가 있다. 집 주변에 있는 둘레길을 걸으며

플로깅을 하였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었다. 그저 산책을 할 때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닌 한곳에 머물러 쓰레기를 주워야 할 정도였다. 한 구역에 모여 있는 쓰레기들을 모두 줍고, 또 걸어서 다른 구역을 가고, 또 수거하는 형식으로 플로깅을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도 채울 수 있었다. 이날은 기억에 남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함도 컸던 날이다.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주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고, 자신도 나중에 쓰레기 줍기에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이때 나는 최고로 보람찬 일을 하고 있구나 느꼈다. 나의 조그마한 행동의 노력을 알아봐 주고, 본보기가 되어 환경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였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생각되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쯤 잘하고 있다고 토닥임을 받은 날이라 가장 기억에 남는다.

추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그린토피아(플로깅) 말고 또 참여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에코에듀 프로젝트 공모전'이다. 이 프로그램도 그린토피아만큼 도움이 된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추천한다. '에코에듀 프로젝트 공모전'은 노작교육(개인 활동 포함)에 참여하고, 작물 재배 및 성장 과정을 관찰한 후 자신의 경험과 성장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식물과 작물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식물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겼고, 다음에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일지를 적으면 식물을 키울 때, 작물을 재배할 때 수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자연과의 친밀도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천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느낀 점 및 개인적으로 얻은 교훈, 생각

그린토피아(플로깅)에 참여하고 난 후 플로깅 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한 사람이라도 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다른 사람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혼자 플로깅을 할 때에는 외롭기도 했다. 하지만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플로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꽤 큰 위안이 되었고,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플로깅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고, 나중에는 다 함께 플로깅을 하기도 하였다. 말로만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며 환경을 지킬 수 있어 좋았다. 플로깅이 환경 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쓰레기는 땅속에 파묻히면 잘 썩지도 않고, 오염도가 높아진다. 또한,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그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주위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정화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공하였으며 깨달음을 주었다. 나 혼자 노력하는 듯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해 나간다면 우리의 환경과 건강은 건강해질 것이다. 환경과 건강은 많은 연관성을 띠고 있다. 둘 다 막 다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며 관리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악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만큼 환경의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 '플로깅'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음을 많이 얻어 갈 수 있어 감사하다.

글로벌 시대

건축학과 서정우

일본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활 속에 쓰이는 간단한 단어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외웠던 단어들도 금방 까먹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생활 속에 쓰이는 표현이나 문장들을 익숙해지도록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된 만큼 해외에 나갈 기회도 많아지는데 번역기를 사용하면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언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수강이 끝날 때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본어에 대한 흥미를 전보다 높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언어

일본어는 영어만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발음이나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강의를 보면서 한자와 히라가나로 필기하며 우선 단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도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사용할 일도 적은 한자까지 나오니 더욱 어렵게 느껴졌지만 단어가 히라가나로 표현되어 있어 히라가나는 알고 있던 저에게는 조금이나마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현장 강의가 아닌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정지해두고 필기하고 다시 들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저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서 일본에 여행을 가서도 쇼핑을 자주 했기 때문에 쇼핑, 패션, 화장, 미용 부분에 대해 공부할 때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에 가서 제품을 찾아야 했을 때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물어봤는데 잘못 번역이 되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과 문장들은 다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자 분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이 알아듣기 쉬웠기 때문에 듣는 부분은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할 수 있는 게 느껴지고 문장 구사력이 발전해 가는 게 보여서 뿌듯했습니다.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아는 단어나 문장이 나올 때 뿌듯함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 일본어 회화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문장 구사를 배우고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 두었다가 직접 다른 문장을 만들어보고 상황마다 쓸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두고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아플 상황을 대비해 의료 상황에 대한 문장도 생각해 보고 숙박을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나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문장에 대해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적어보며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에게 일본어는

대화에서 기본이 되는 인사 표현부터 감정 표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마냥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말이 실려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의미가 다르게 전달 되어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일본어 부분에서 실려되는 말이나 어색한 표현같이 조심해야 할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다르게 일본어는 남자와 여자가 쓰는 표현이 다른 것이 신기했고, 강의에서 한자로 표현된 단어들을 히라가나로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 점이 알아보고 읽기 편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기 전보다 일본어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단어와 표현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플, 잘하고 싶어?

아트앤디자인학과 임유빈

학습공동체 소개

학습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진 전공 동기들과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 만나 공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마음 맞는 동기들과 하고 싶었던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 비교과 프로그램과 협업해 진행하면 더욱 더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공동체 참여 동기

지난 학기때 전공수업을 하던 팀원이랑 이번학기 때 학습공동체를 했습니다. 서로 겹치는 전공도 많고 원하는 분야도 비슷해서 같이 공모전도 나가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도 있고 서로 잘 맞는 거 같아 방학 중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지원에 대해 고안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습공동체의 특별한 점

전공 팀플과 다르게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보니 서로 기분 나쁠 상황도 없고 재밌게 즐기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선배가 있다면 함께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매주 만나다 보니 그룹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고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팀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매주 함께 셀카를 찍으며 갈수록 쇠약해지는 저의 얼굴을 사진을 통해서 매주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공동체의 효과적인 부분

3학년 학생끼리 모여서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4학년 이후 졸업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털고 알고 있는 학교 내 활동이나 공모전, 과제 등 같이 할 수 있는 걸 학습공동체 안에서 활동한 후 보고서에 작성하면서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 교수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비슷한 분야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진행하다보니 서로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나 사진을 찍는 시간 또는 만나는 시간 등 의견 충돌로 인해 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서로 배려하면서 잘 활동하면 좋게 마무리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

활동을 하면서 시간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셀카를 찍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활동을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셀카를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번 더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엄수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할 일을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때문에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 원하는 부분도 다르고 생각하는게 다르게 당연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하거나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팀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조심히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할 학우들은 팀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 표현과 의견 내세우기를 이기적인 행동으로 팀원들에게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내온 환경도 다르고 각자 해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감정을 곧이곧대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참고 있는 상대방의 기분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활동을 마치며

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20대의 추억을 쌓고 그 추억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때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거야라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잊지 않고 다음 활동에도 더 발전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그 믿음이 활동결과로 나오고 목표를 완전히 이루기 보다 목표에 다가갔다는 점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한해였지만 더 나아가 많은 수상내역과 활동내역을 얻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토링 활동 부터 학습공동체까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겐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인연이 닿은 팀원들과 멘토 선배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학우들에게 학습공동체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무제

인공지능융합학부 송준연

'성적향상 학습공동체'는 3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한 과목을 주제로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1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신입생의 신분이라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저와 인연이 없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에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딱 한번만 '밀저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과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고 같은 공부를 하며 친분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주에 최대 2회씩, 최소 12회차를 같이 만나 학습하여 성적을 향상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 학습 방법은 자율이었기에 이러한 활동을 처음 하는 우리 팀은 초반에 어떡해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뒀던 것이 기억납니다.

초반에 어리숙하게 진행되던 프로그램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감에 따라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의논해 가며 더 완성도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컴퓨팅 사고'라는 과목을 공부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강의의 수강 후 특정 부분을 다른 팀원에게 설명하며 몰랐던 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던 중 모든 팀원이 모르거나 헛갈리는 부분이 간혹 생겼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논하며 첫 째 '구글에 검색하기', 둘 째 '교수님께 질문하기'라는 해결책을 내놓았고 '구글' 혹은 교수의 설명을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다른 팀원에게 설명해가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주로 'zoom'의 화상회의를 통해 같이 공부 하였는데 각 파트마다 화면을 공유하여 자신의 속도로 해당 내용을 설명하거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 팬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하며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학습 공동체'를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대여해주는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zoom'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직접 대면했을 때 왠지 모르게 설렜던 것이 기억납니다. 직접 대면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는 화이트보드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다과를 먹으며 직접 대면하니 화상회의 때보다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은 함께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다 같이 하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 상 자신의 몫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는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학기 초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외로운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큰 걱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적어도 2명은 알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없어져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리더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는데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는 계획의 중요성과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느끼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히 손만을 사용하며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팀원들과 공부할 때는 입을 사용하며 말하니 졸리지 않았고 개념에 대해 설명할 때는 종종 관점에서 차이를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토론을 해가며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할 때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컴퓨팅 사고'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같은 수강생들한테 들곤 했는데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에 '컴퓨팅 사고'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험기간에만 짧게 공부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뭘 배웠는지 기억도 못한 채 쓸모없이 시간만 날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배움의 즐거움을 직접 느끼고 배운 바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적향상 학습 공동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

영어영문학과 최혜민

1. 프로그램 설명 및 참여 동기

삼육마을 프로젝트는 삼육대학교 글로컬사회혁신원과 노원구청 사회복지과와 협업을 맺어서 학생 참여 국고 활동으로서 서비스비와 봉사 시간을 제공해주는 활동이다.

대학교에 와서 대외활동이나 대내활동과 같은 부가적인 활동들을 꼭 하고 싶었다. 때문에 학교 생활이 조금 익숙해질 차나에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마침 삼육마을 프로그램 홍보를 보게 되었다.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직접 만든 봉사 프로그램을 사업 형태로서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에 매력을 느꼈고, 참여 독려를 위한 우수 활동팀 선발식도 있다는 것에서 열의가 불타올랐다. 살면서 봉사는 다수 해봤지만 직접 만든 봉사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은 없었기에 너무나도 기대가 컸고, 더 나아가 내가 우수 활동팀이 되면 좋겠다는 굳은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대내외적 활동이 아니라 직접 내가 팀장이 된 활동으로서 내 첫 대내활동들을 장식하면 너무나도 뿌듯하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 삼육마을_어르신 짝꿍 개발 계획

내가 만든 삼육마을 프로그램 이름은 '어르신 짝꿍'이다. 고령화와 노인 독고사가 늘고 있는 사회 이슈적 추세에 맞추어서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독거 어르신들과 짝을 짓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울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로 인한 효과는, 어르신들과의 대화로 서로에게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어르신분들은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감을 낮출 수 있고 새로운 문화와 여가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어르신들과의 대화로 서로에게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어르신분들은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감을 낮출 수 있고 새로운 문화와 여가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동아리원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서로 짝을 짓고 밥을 먹으며 함께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다. 그 이후에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등 문화생활과 여가시간을 보낸다.

특히, 낯을 가리시는 어르신분들이 있다면, 관계를 쌓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함께함에 있어서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다가가면서 원할 때에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팀원들의 의지 도모를 위해서 가끔 회식을 진행하면서 함께 모이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주기적으로 각인시키며, 봉사 활동의 난이도가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기간	프로젝트 내용
6월	어르신들과 짝을 만들고, 식사 대화를 통한 친밀감 쌓기
7월	지어진 짝끼리 영화 혹은 연극 혹은 전시회 등 문화 활동 즐기기
8월	어르신들과 짝을 만들고, 식사 대화를 통한 친밀감 쌓기
9월	지어진 짝끼리 영화 혹은 연극 혹은 전시회 등 문화 활동 즐기기
10월	어르신들과 짝을 만들고, 식사 대화를 통한 친밀감 쌓기
11월	지어진 짝끼리 영화 혹은 연극 혹은 전시회 등 문화 활동 즐기기

3. 어르신 짝공 프로젝트 중 알게된 것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적극적이지 않던 것이었다. 심각한 사회적 노인 이슈를 보고선 내가 직접 그 내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운 '유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만 지루해도 하기 싫어하셨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절대 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소통이 힘들다는 것이었다. 미리 예상한 문제긴 했으나,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 보청기를 끼신 분, 귀가 한 쪽이 잘 안들리시는 분과 같이 육체적으로 소통이 힘든 분들을 제외하고도 가장 큰 것은 세대적으로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분들이 살아오신 세상은 점점을 찾기로 힘들었고, 그 때문에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많이 끊겨서 힘든 부분으로 다가왔다.

4. 프로젝트 성과

어르신 짝공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동장 모두 어르신들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지혜와 교훈들을 얻었다. 이에 따라 각자 노인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보다 더욱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다정히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늘어났다. 사회 이슈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육안으로 보고 함께 활동하며 피부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실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껴보고 알게 되었다. 더불어, 전보다 자주 조부모님댁에 가게 되었다는 팀원의 후기도 있을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애정이 늘어났다.

5. 삼육마을 소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긍정적으로 느낀 것은 처음에는 낯설어하시던게 보였는데, 어느새엔가 우리가 도착하면 "예쁜이들 왔어? 오늘은 어떤거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거예요?" 하고선 다정히 말을 건네는 어르신도 계셨다. 이 말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함께 만든 비누를 잘 쓰고 계시는걸 보았을 때도 큰 보람을 느꼈다. 어르신께서 손을 씻는걸 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준비하여 만든 비누를 정성스레 담아 다니시면서 손을 씻고 계셨다.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직접 내가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세상에 내놓게 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또 실상은 어떤지, 피드백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며 각종 서류들을 작성하는 방법과 팀원들을 이끌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든 방면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을 추후엔 내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한 내 성장이다. 많은 어르신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나면서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꾸려나아가 할지,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는지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많은 감동들이 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노년 준비의 큰 틀을 잡게 되었고, 내 미래적인 삶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화이팅!

컴퓨터공학과 박희연

오랜만에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나 둘러보던 중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특강_슬기로운 겨울방학생활(방학 중 경력개발)'이라는 특강을 발견했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취업특강을 한번 듣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찾아보지 않았고 저번에 들었던 내용들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강의 이름도 방학 중 경력개발이었기에 이번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기 전에 들으면 무척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학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취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둔 것들이 없어서 이제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듣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특강 첫 부분에서는 강사님께서 직무경험에 적합한 나만의 스펙 쌓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6가지 정도를 보여주셨는데 '직무 관련 인턴 및 실습',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교육', '직무관련 동아리 및 대외활동 공모전', '직무관련 연구조교 학회, 논문, 세미나', '직무관련 프로젝트' 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직무관련 동아리에 드는 것이 가장 시도하기 쉽다고 생각했는데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직무관련 교육이 가장 쉽다고 하셨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왜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조직하는 것도 좋은 스펙 쌓기라고 하셨습니다. 스터디를 취업 몇 개월 전에 시작해서 활동을 해도 말하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학 때 몇 번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에 했던 스터디는 기록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는 중에 힘들어서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스터디를 한다면 좀 더 열심히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방학 때 하기 좋은 것들에 인턴 실습과 직무관련 자격증을 말씀해주셨는데 인턴 실습은 아직 하기에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경쟁률도 높아서 조금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이다 보니 직무관련 자격증 중에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격증은 4학년부터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휴학을 하기 때문에 내년 겨울에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데 리눅스 수업 교수님께서 리눅스 마스터 2급은 방학 때 공부하면 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있어서 이를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인턴도 되도록 직무관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직무 관련이 아닌 인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언은 다른 과에게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만약 인턴을 한다면 직무관련으로 최대한 찾아볼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 대학생활 활용법으로 대학생일 때 필요한 역량을 미리미리 쌓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외국어 자격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공모전, 해외탐방, 박람회, 인턴 / 현장실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외국어 자격 시험 중에서 토익을 계속 봐왔었는데 700점대 초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토익 중급반 수업을 들으면서 800점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방학이 그나마 토익에 집중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1,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먼저 점수를 만들어놓았다면 좋았겠다는 후회를 했지만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IT쪽 공모전들은 팀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작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전에 그 공모전에 참가하기위해서 필요한 실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공모전들은 4학년 때 나가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박람회에 갔던 것이 취업할 때 좋게 작용한다는 것을 들어서 내년에 친구들과 같이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 기업들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여러 기업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꼭 가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강사님께서 학년별 대학생활 plan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벌써 3학년이 다가와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로 많은 활동들이 취소되어서 못했던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조차 못했기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보여주신 대학생활 plan에 나왔던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은 한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입사지원서, 면접 등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때 간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4학년 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외활동 및 공모전, 아르바이트, 인턴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잡코리아와 사람인은 많이 들어본 사이트들이었지만 위비티, 링커리어, 올콘, 청년드림, 로켓펀치, soon, 등 네알바들은 모두 처음 들어본 사이트들이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알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알바 찾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알아서 잘 못 썼지만 이제 입학하는 사촌 동생에게 추천해주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공모전과 인턴 공고를 보기 좋은 사이트들이라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끝자락이 되어서야 이런 취업 관련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좀 더 일찍 찾아보고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이 들었으면 좋았더라는 후회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특강을 듣고 나서 취업진로지원센터의 특강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대학일자리센터에 상담 신청과 더불어 진행하는 활동들도 같이 자주 들어가면서 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방학 중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계획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취업 특강을 한다면 다시 들을 것 같고 다른 후배들에게도 꼭 일찍 들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실제 멘토를 만나다. 상담심리학과 기업멘토 만남의 장에 참석한 소감

상담심리학과 한민

10월 12일 수요일 저녁시간에 진행된 '상담심리학과 우수인재와 기업멘토 만남의 장'에 참석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상담심리전공 유관 분야 기업의 전문멘토와 대화하며 취업과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프로그램에서 만난 멘토는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 백인선 멘토님이셨다. 지난 학기부터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수업에 참여하면서 진로와 취업 문제에 관하여 더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과정평가형 수업을 통해 직업상담사 2급 취득을 할 예정이니 직업상담사와 관련된 진로를 생각해본던 중에 마침 직업상담사 멘토 분이 오시는 프로그램 홍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진로에 대해 고민할때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담,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였다.

강사로 참여하신 백인선 멘토님께서는 20대 시절 어떤 일یدن 닥치는대로 하면서 여러 알바와 회사를 전전하시다가 경력개발연구소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면서 연구소에서 직업 심리검사, 직업 상담 등 훈련을 한 후 경시대 취업지원프로그램 기획 서포트 업무를 맡으시면서 직업 컨설턴트의 길을 시작하셨다. 백인선 멘토님께서는 직업 상담사 일을 하시면서 내담자로 실직자, 아직 취업을 준비하며 진로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며 청소년부터 중장년, 노년까지 모두 맡아본 경험이 있으셨다. 또한 상담 외에도 다양한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셨다.

직업상담사는 취직할 때 1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장이 많아 직업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기업에서 행정직 등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한 후 같은 직장에서 상담사로 전환하여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다. 직업상담사가 일하는 영역으로는 크게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방공기업이 있다. 주로 젊은 사람이 공무원에 도전하는데 고용노동부, 교육청 직업상담직렬에 취업할 수 있으며 교육청 직업상담직렬 중 9급 공무원은 직업상담 자격증이 있는 것이 메리트가 크지만 행정직에 해당하는 7급의 경우 9급보다 직업상담 자격증 메리트가 적으며 학위 또한 필요없으며 9급 공무원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7급과 9급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은 년초에 공고가 뜬다는 것을 잘 기억해두고 맞춰서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발전재단, 국방전직교육원, 스포츠 산업 관련 지원원, 오십플러스재단, 노인인력개발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전형으로 진행되며 무기계약직원과 정규직이 되기 쉬워 신입이 많이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마다 채용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은 통합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기관에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의 채용공고를 볼 수 있는 곳으로는 '잡알리오'가 있으며 직업상담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공고를 확인하기 어려워 올라온 각 공고마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공고인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알리오'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잡알리오'와 '알리오' 두 사이트 모두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공기관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을 직무 시험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직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경우는 사기업과 비교해 채용 수가 적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업의 경우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등은 채용 공고의 수가 많이 줄었다. 반면 스텝스, 인지어스, 맥시머스 등이 고용노동부 사업, 서울시 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을 많이 수주하여 새로 직업상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업상담사는 하나의 사업진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업을 수주한 기업에서 직업상담사를 계속 채용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직업상담사의 계약도 종료된다.

지방공기업에 직업상담사로 취업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려면 '클린아이', '클린아이 잡플러스'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직업상담사 직종에 취업하여 일한 상담사들은 산업수주를 맡고 진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상담사로 남거나 기업을 나와 자신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며 아예 직업상담이 아닌 다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로 전직하거나 풍부한 직업 및 취업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이 아닌 아예 새로운 직무로 전직하기도 한다.

직업상담사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는 우선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장 필요하다. 내담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담자의 변화에 따른 뿌듯함과 보람, 내담자의 성취에 기뻐하는 자세를 지녀야한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기업에 대한 정보, 산업에 대한 정보 많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또한 자소서를 잘 작성하고 피드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와 상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경쟁력이 되므로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한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멘토님께서 직업상담계열 집단상담을 하는 꿀팁으로는 우선 직업상담은 상담 프로세스가 아이스브레이킹, 라포 형성, 자기 파악, 타인과 나눔으로 구성이 명확한 편이라 이러한 구성을 알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편하다고 말씀해주셨다. 또한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담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각 내담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멘토님께서는 직업 상담 중 전직 지원 상담은 국가가 진행하는 교육 안내 상담으로 전직가능한 일자리를 안내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주로 5,60대가 오기 때문에 청년과 신입 상담사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사 관련 직무와 채용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점, 해당 직무의 장단점, 직무의 성향이 나와 잘 맞는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 직업상담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직종이며 필요한 영역이 많으나 수요가 많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취업하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하고 별이가 적은 점, 월급은 적는데 기업 유형, 직업직무, 전공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내담자가 오므로 공부해야 할 범위가 광범위하여 늘 새로운 것을 공부하려는 의지가 많이 요구된다는 점, 계약직을 계속 전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인상에서는 단점이라고 느꼈다.

작은 불씨

물리치료학과 송시은

작은 불씨

EGW독서모임은 화잇센터에서 주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정 도서 중에서 조원들과 하나의 책을 선정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책을 음미하며 읽는다. 인상 깊은 구절이나 조원들과 같이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메모를 한다. 모든 책을 정독 후, 정해진 날짜에 조원들과 만난다. 서로 안부를 묻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책을 읽으면서 느낌 감정을 서로 나누고 공감한다. 이 독서모임에 중요한 특징은 서로의 의견에 대한 존중이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기 보다는 존중하며 듣는다. 서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참된 모임 같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학기중에 시간을 내서 책 한권 읽기가 어려웠다. 바쁘기도 했고 책은 뒷전으로 많이 밀리기도 했다. 당장 중요한 과제, 시험을 뒤로하고 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SU-TALK'에서 독서모임에 관한 글을 봤다. 한 학기 동안 최소 4권 이상의 지정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고 팀별 토의를 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 팀별 토의를 한다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지금껏 책을 좋아해서 읽어왔지만, 책과 관련해서 누군가와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볼 기회는 없었다. 방학중에 독서토론 모임을 가입하고 싶어서 몇몇 카페에 가입했지만, 거리는 멀고 나잇대도 나와 맞지 않아 제대로된 활동을 못해봤다. 그러던 와중 우리 학교사람들과 같이 독서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바로 신청하게 됐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정말 제격이었다. 또한 혜택도 좋았다. 팀별로 2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며 참가자에게도 SU-Point를 제공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내 또래 친구들과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정 도서도 모르는 책도 몇몇 있었지만 좋아하는 책이 있었다. 나는 심리학 도서를 좋아한다. 그래서 책을 읽을때도 심리 관련된 책을 읽곤했다. 읽는 책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독서모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었고 나의 지식영역 또한 확장하게 되었다. 사람이 크게 볼줄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분야의 책을 접하는게 나한테 큰 도전이었다. 이 도전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EGW 독서모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바로 토론을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어느곳에서도 필요한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토론에 참가하는 건 효과적이다. 토론을 하는 과정은 먼저 책을 음미하며 읽는다. 가장 인상깊은 부분을 표시한다. 조원들과 토의하고 싶은 부분을 글씨로 적는다. 나의 주장과 근거를 작성한다. 입으로 뱉으면서 연습해 본다. 우리 토론의 특징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면서 토론하지 않는다. 그저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한다. 당신의 생각은 그렇군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은 찬반을 나눠서 싸워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분 좋게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분은 나의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 또한

성장시킬 수 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의 능력을 전부 성장시킬 수 있다는게 정말 좋았다. 그리고 책을 읽고나서 토론을 하기 전에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 감상문을 처음 작성할때 어려웠다. 긴 내용의 책을 요약해서 쓰는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하다보니 요령을 터득했다. 보다 책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었고 앞에 내용을 계속 떠오르면서 책을 읽어나갔다.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니 훨씬 재밌었다.

지금 이야기는 처음 독서모임에 들어갔을 때 얘기다. 팀별로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는다. 우리는 그걸로 밥을 먹었다. 처음 만나서 어색하게 인사했다. 낯을 많이 가리는 나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몰랐다. 나잇대는 다행히 비슷했다. 같이 밥을 먹고 도서관 스터디 룸에 와서 토론을 했다. 배가 든든해서 인지는 몰라도 2시간 넘게 책의 내용으로 수다를 떨었다. 이렇게 낯을 가리는 내가 밥 한번 먹었다고 이야기를 술술하게 너무 신기했다. 책이란게 그렇다. 낯가리는 사람, 소심한 사람, 조용한 사람 상관없이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한다. 책속의 이야기를 할 땐 난 누구보다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책이 날 변화 시키게 인상 깊었다.

3번째 독서토론하는 날이었다. 사정상 화상회의로 얼굴을 비쳤다. 그날도 어김없이 책에 대해 깊은 토론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토론한 책은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은 옳다'라는 책이었다. 정말 좋아하는 장르여서 그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때 내가 이런 주제를 던졌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스스로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고민하는 얼굴이 대부분이었다. 그때 한 조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힘들었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며 빛을 찾았다고 했다. 이것이 시발점이었다. 우리는 그날 각자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았다. 마치 집단 상담소 같았다. 그날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 3번째 독서토론에서 말이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존중하는 그 말투와 대답은 너무 아름다웠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를 위로해준 우리 조원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나는 낯을 많이 가린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은 낯설어 한다. 그래서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책은 좋은 친구였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책을 읽으면서 버텼다. 혼자만의 세상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었다. 주위엔 책을 읽는 친구가 없었고 독서모임을 찾아 헤맸었다. 그러다 운명처럼 독서모임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상상 이상이었다. 독서로 모인 인연이 이리도 끈끈할 줄 몰랐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게 이리 행복할 수 없었다. 낯도 많이 사라졌다. 만나면 책 얘기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싶은 분, 혼자 책 읽기 지겨운분 모두 독서모임에 오시면 상상 이상으로 얻어 가는게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독서토론으로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을 만들 수 있다. 한 학기동안의 독서모임으로 많은 걸 배웠다.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경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다. 독서모임으로 한 학기 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보냈다. 이 따뜻한 작은 불씨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리라. 올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다.

인식의 변화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다!

일본어학과 안지민

- '나' 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기 -

사회문제는 대중에게 노출되어 점차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가 이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그리고 이 세계안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지금 전 세계는 빈곤, 차별, 환경 오염, 전쟁 같은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빈곤과 차별, 환경을 둘러싼 문제가 있듯 선진국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세계적 과제의 공통분모는 오염되고 훼손되어 병들어 가는 '위기의 지구'를 지속가능한 환경의 지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상황과 직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계속해야 할 때 '지속가능한'이란 단어를 꺼낸다. 어쩌면 그것은 욕망을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소심한 '우회적'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세상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세운 목표가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다.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주요목표 17개와 세부목표 169개가 있다. 이번 학기 비교과 체험'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하며 주요목표 14번 '해양생태계 보전'의 세부목표를 통해 내가 알고 있던 해양오염의 상식이 얼마나 단순했던 것인지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좀 더 정확한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고 고민해보며 '행동'으로 실천 해야 한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플라스틱이 해양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로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 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더 큰 원인은 이해관계가 얽힌 '상업적 어업'에 있었다. 무분별한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남획과 부수어획으로 희생되는 해양생물들, 특히 연간 30만 마리의 고래류가 희생되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고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거대한 포유류과 물고기 또는 일본, 노르웨이에서 포경으로 희생되는 물고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고래가 얼마나 중요한 '기후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같은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분명한건, 고래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포획되거나 상업적 어업의 부수어획으로 죽어가는 안되는 소중한 해양 생물이라는 사실을 전세계가 명확히 인지하고 고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획, 부수어획, 유령어업, 저인망 어업 등은 더 멀리가서 더 많이 잡으려는 무분별한 상업적 어업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물임을 부정 할 수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상업적 어업을 뒷받침 하는 것이 '어업용 면세유'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우리의 세금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상업적 어업은 대부분이 기업형 어업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일명 '나쁜 수산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수산보조금으로 '유류세 감면'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먼 바다에서 더 큰 그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을 보면 어선들이 가까운 바다의 물고기가 줄어들자 더 멀고 깊은 곳까지 나가 물고기를 잡고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다.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대륙 스타일'의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셋째, SDGs 지속가능한 목표라면, ESG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방법이자, 수단, 활동인 '지속가능한 경영' 이기에 이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본인은 이 두가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인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SDGs를 실천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처럼 기업들도 ESG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구 곳곳의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윤리적 어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ESG경영을 통해 윤리적 어업을 지향하는 일명 '착한 기업'은 어느 곳일까하는 의문이 생겨 좀 더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동원산업'이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국제조업 규정을 100% 준수하며 '불법조업 제로'를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해 적극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르는 어업' 진출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조업방식에 있어서도 어업개선 프로젝트등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며 인간과 해양 동식물이 공존할 수 없는 형태의 상업적 어업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 문화가 ESG경영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해 보았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투자'로 의무화 되었다. ESG 경영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 이케아, 유니레버, 네슬레, M&S 등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보면 한결같이 UN SDGs를 자신들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 상품과 서비스, 사회공헌 활동등과 연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크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지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 노력 할 수 있는 있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교과 체험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임을 인지하고 행동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의 개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먼저 전 지구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와 이슈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나' 부터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SDGs의 슬로건 처럼 전세계인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책임감있는 세계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인은 이러한 비교과체험을 통해 작게는 자신만의 가치와 생각을 확장시키며 행동 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크게는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식품영양학과 김소은

해당 프로그램은 ppt를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팁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 효과적인 툴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점이 아쉬웠던 시기에 마침 적절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파워포인트의 기능적 측면과 이를 이용한 발표의 긍정적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어떤 부분이 어느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이 이미 존재하지만 오히려 방대한 정보에 휩쓸려 우선적으로 선취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 필요한 부분만 집약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특강을 이전에 참여했던 적은 있으나 그때와 강사는 물론 세세한 내용 또한 차별적이라 익숙한 느낌이 적게 들어 좋았다.

예정된 시간이 넉넉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상황에서는 꽤 빠듯하게 느껴졌는데 촉박한 만큼 빨라진 설명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덕에 수강자의 집중력도 상승된 분위기를 느꼈다. 간혹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수강생이 있어도 뒤로 제쳐두지 않고 즉각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강사의 책임감을 볼 수 있었다.

여타 특강에서는 참여자의 질문이 빈번하다고 느낀 적이 손에 꼽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몇 없는 강의 중 하나일 것이다.

수강생 규모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들이 있어 스스로 궁금하다고 여겼던 부분까지 대신 해결이 되기도 하여 도움이 되었다.

많은 내용 중 특히, 모핑과 애니메이션 파트 부분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편이한 지식을 배우게 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활용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밀어내기 효과나 울리기 효과와 같은 일명 '은은한 효과'가 그나마 유의미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도형을 활용할 때는 수많은 도형 중 원형이 가장 많이 쓰이며, 속도는 0.7초 혹은 0.8초로 줄이는

것이 좋다는 구체적인 첨언 또한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생각지 못한 디테일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폰트의 활용도 그중 하나이다.

본문의 폰트와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부분의 폰트를 다르게 쓰는 것까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다 신뢰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본문은 고딕이나 명조체를 적용하고 필기체로 포인트를 가미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외 컬러톤에 따른 효과와 추천하는 색, 전체적인 분량과 각 슬라이드마다 적절한 분량,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캡션 사용법, 유료 및 무료 이미지 사이트별 활용 방법,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와 옵션 설정, 구글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팁 등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특히 새로운 정보들이 대부분이어서 강의 내내 느슨해지지 않고 끝난 후에는 약간의 아쉬움과 추후 기회가 되면 또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졌다.